

# 생태 복음화 모델 연구

황종렬(미래사목연구소 복음화연구위원장)

## 1. 시작하면서

하느님은 생명이시고,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시다.<sup>1)</sup>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온 세상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는 것이었다.<sup>2)</sup> 그리스도교는 이 하느님=생명 비전 위에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 자체가 하느님이 생명이시라는 것, 하느님의 다스림은 살게 하는 영의 일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생명 있는 모든 곳에 하느님 계시고, 하느님은 생명을 불러 세우시는 분이시라고 할 때, 하느님의 손길이 닿은 모든 생명과 자연과 우주에 대한 감수성은 구약성서가 확인시켜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지극히 그리스도교적인 영성적 토대이다. 그러므로 우주와 자연에 대한 감지력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아시아 전통 종교와 문화의 전유물인 것은 아닌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도교는 구원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식하고 있고, 바울로 사도 전통에서도 온 생명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명의 환희로 체험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로마 8, 19).

다만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이 같은 감수성이 신학과 영성 안에서 이성주의에 억압당해 온 측면이 명백히 있었다. 그 부작용이 그리스도교 문명사 안에서 이성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자연에 대한 지배욕, 자연에 가깝다고 규정된 여자와 유색인종들, 그리고 그리스도교 이외의 문화 종교 전통들에 대한 억압과 지배로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불행한 역사가 그리스도교가 본래 딛고 서 있고 또 지향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질식시키게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욱 더 그리스도교의 본래 면목, 생명의 하느님과 생명을 지향하는 종교로서 그리스도교의 참의의와 가치를 이 시대에 더욱 더 탄력 있게 되찾고, 이를 역동적으로 선포하고 증거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로 하느님이 생명이시라는 진리야말로 온 생명계에 축복이다. 이 축복에 민감한 영성은 자기, 우리, 현존하는 세계, 곧 모든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 있는 분이 있게 하신 모든 것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학과 영성의 기점이다. 우리가 있게 하심에 대한 찬양과 감사,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강생 사건과 “하느님의 자녀” 직분의 영성적 토대이다. 예수의 치유와 대화와 가르침과 그

1) 창세기 1장과 지혜 1장 14절 등을 보라. 요한 복음 3장 16절도 보라. 여기에는 하느님의 생명의 주관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 사건이 연계되어 있다.

2) 요한 복음 3장 16절과 10장 10절과 14장 6절 등을 보라.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관자”로 선포되고 있다.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차원에 관한 한 탁월한 신학적 성찰이 구스타보 구티에레즈에 의하여 개진된 바 있다: 구티에레즈, 황종렬역, 생명이신 하느님, 분도출판사, 1994, 특히 “제1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를 보라.

분의 수난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으로 존재하기 시작할, 이 세계의 모든 자연과 가난한 사람과 병자와 여자들, 그리고 하느님의 모든 선한 사람들을 하느님의 축복의 수령자요, 그 축복을 다 살아갈 주체로서 존중하게 한다.

하느님이 생명이시고 구원을 “살게 하는 것”으로 보는 긍정의 영성에서 바라볼 때, 가톨릭의 생태 운동의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스도교 전통을 반자연적으로 보는 데 길들여진 시각에서는 가톨릭 생태 운동의 시점을 20세기 중반 이후로, 그것도 고요한 바오로 2세가 “1990년 평화의 날 메시지”를 통하여 생태 복음화의 전망을 제시한 때로 보는 시각이 있다. 세계적으로 그러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가톨릭의 영성 전통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은 성서와 그리스도교 전통이 반자연적이거나 반생태적이라고 하는 것과 성서와 그리스도교 전통을 살아가고 해석하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반자연적이거나 반생태적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성서와 그리스도교 전통의 정통 계보는 결코 반자연적이거나 반생태적이라고 매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성서와 교회 전통을 참으로 오랜 동안 인간중심적으로 자연에 오만한 형태로 해석하고 자연을 개발하고 정복한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기 위해서도 위기에 짓눌리는 신학이나 영성을 말하기에 앞서 하느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축복을 바로 인식하고 나눌 필요가 있다. 생태 위기를 말하기에 앞서 생명의 축복을 말할 필요가 있다. 축복이 먼저다. 은총이 먼저다. 축복과 은총 없이는 실제로 사명도 죄도 없다.

이런 전망에 따라서 생태 영성을 살펴볼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여한 생명의 풍요를 자각할 필요가 있다. 자연은 좀 “헤프다.” 단 하나의 호밀이 넉달 만에 뿌리가 약 600킬로미터, 뿌리털이 140억 개가 자랄 수 있다고 했다. 흙 약 16 cm<sup>3</sup>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뿌리털의 총길이가 약 9,654 km라고 한다.<sup>3)</sup> 그 풍요로움이 이 정도이다. 자연은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냐고 묻지 않는다. 그 헤프미 꼭 하느님을 닮았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또 살 수 있다.

또한 생명의 현상과 주체와 자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철저히 재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흙”을 살아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생물학자 존 스토러(John Storer)는 우리의 지구상의 1평방 마일의 땅에는 우리의 지구상의 다른 모든 1평방 마일의 땅에서 온 흙 알갱이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한다.<sup>4)</sup> 이것이 상호-순환과 상호-의존의 실상이다. 발이 없어 움직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쉬운 흙이 이러할진대, 생물들은, 인류는 얼마나 더 커다란 역동성을 갖고 서로에게 침투하고 또 침투되며 살겠는가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축복의 순환이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싸고도는 은총의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 이 은총을 감지하고 경축하며 나누고자 하면 할수록, 이 은총을 독점하고 억압하며 훼손하는 행태와 세력이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생태 영성은 생명의 계에서 작용하는 하느님의 이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하느님의 생명의 다스림에 대한 응답에 근거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3세계 민족들이 일반적으로, 서구 유럽의 자연 지배적인 사고방식과는 대비되는 형태로, 지구에 대한 깊은 공경심과 지구와 지구에 사는 창조

3) 매튜 폭스, 황중렬역, 원복, 분도출판사, 2001, 56.

4) 같은 책, 305.

물들에 대한 커다란 존중을 갖고 살아 왔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이들은 지구를 자신들의 여정의 동반자로만이 아니라 경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살아 온 사람들이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랬고,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나 부족민들,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와 같은 고대의 발달된 문화와 종교의 구성원들이 그랬다. 이들은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을 체험하였고, 이들 모두의 삶과 축제들에 자연이 충만하게 참여하며 동반하는 것을 체험해 왔다. 이들 가운데는 서구의 이성중심주의에 근거한 성과 속, 인간과 자연을 대립시키는 형태의 이원론이 없다. 이들과 지구 사이에는 지배와 종속이 없다. 오히려 생명의 대주체를 중심으로 한 생명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는 프란치스코가 대표적으로 그러하였듯이, 한 형제자매를 본다.

이런 관점에서 분다의 “흙”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는 흙을 집어 들어 제자들에게 이것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제자들이 “흙입니다” 하고 답하자, 분다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다, 이건 생명체이나라, 중생이나라.”<sup>5)</sup>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한 환경운동가의 무 체험에 의해서 좀더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무씨를 뿌리고 몇 달이 지나 자란 무를 뽑게 되었다. 그때 무가 뽑힌 자리가 텅 빈 것을 보면서, 새로운 자각을 체험하였다고 했다: “아! 무가 흙을 먹고 자랐구나. ... 우리는 흙을 먹고 사는구나.”<sup>6)</sup>

흙이 무 뿌리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버티면, 무는 죽는다. 하지만 역으로, 흙이 그렇게 자기 자리를 고집하는 한, 흙은 영원히 흙일 따름이다. 무의 생명에 참여할 기회를 잃고, 무를 통하여 인간 생명체와 교류할 기회를 잃고, 인간 생명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느님과 교통할 기회를 잃고 만다. 그러나 흙은 하느님에게서 왔다. 그리하여 하느님에게서 온 창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자기 자리를 내주었다. 자기 자리를 내준다는 것은 자기를 내주는 것인데, 자기를 내주는 이 마음을 읽을 줄 알 때, 흙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왜 생명체인지를, 그것이 왜 생명체의 어머니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흙은 생명의 씨에게 자기를 비워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자기 품에 안긴 생명의 씨가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인류와 우주에 생명의 길을 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십자가의 케노시스를 닮았다.<sup>7)</sup>

우리는 흙을 딛고 흙에 안겨 흙을 먹으며 산다. 흙이 무를 통하여 생명으로 매개되는 것을 보았는데, 분다는 이 매개 없이 바로 흙을 생명으로 노래하고 있다. 우리는 흙을 노래하며 사는가, 아니면 착취하며 사는가? 흙을 닮아 자리를 내어 주며 사는가? 흙을 닮아 너를 너로, 무를 무우로 살아가게 하며 사는가? 아니면, 자기 자리를 고집한 채, 무씨를 짓누르는가? 하느님의 살리시는 손길을 매개하는 저 흙은 무에게 구원의 원천이다. 자기를 내어주는 저 흙의 품을 떠나서 무가 이번에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흙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취지에 따라 인간과 자연과 문명이 한데 어우러져 하느님의 생명의 다스림을 더욱더 아름답게 증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기획하기에 이르렀고, 이런 관점에서 아래에서는 먼저 이땅에서 이루어진 생태 복음화를 위한 운동의 역사를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모델들을 살펴보고, 이 같은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생동하게 하는 데 요청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5) 차동엽, <가톨릭신자는 무엇을 믿는가> 1, 에우안켈리온, 2003, 246.

6) 같은 책, 146.

7) 같은 책, 277 참조.

생태 복음화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자기가 누구를, 누구의 어떤 태도를 닮은 존재로 살 것인지를 성찰하는 충만한 은총을 넘치도록 체험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2. 생태 복음화 운동의 역사

### 2.1. 생태 복음화 운동의 현재: 기존 활동에 대한 비판적 인식

현재 한국 가톨릭 주교회의 산하에는 정의평화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 안에 환경소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 또한 전국교구의 환경과 생태 영성운동 단체들 대부분이 참여한 천주교환경연대 역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가톨릭 환경운동과 생태 영성운동은 현재 전국의 거의 모든 교구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가운데 몇 교구의 사례를 언급하자면, 먼저 서울대교구는 “환경”과 “농촌” 사목을 통합하여 환경·농촌사목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서울대교구 소속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여성환경바람 레헴” 등도 생태 복음화의 전망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대전교구는 현재 “가톨릭환경분과회의”를 두고 있고, 인천교구는 “가톨릭환경연대”를 결성하여 인천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sup>8)</sup> 안동교구는 “생명환경연대”를 통해서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생태 복음화의 모델들을 모색하고 있다. 수원교구는 “환경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대구대교구는 “푸른평화”를 통해서 생태 복음화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두 단체의 활동상에 관해서는 모델들을 소개할 때 좀더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부산교구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를 두고 있고, 광주대교구는 “환경사제모임”을 통해서 생태 복음화를 추구하고 있다. 전주교구는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큰 환경 문제 가운데 일부로 떠오른 새만금 간척 사업과 부안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싸고 생태 복음화의 지평과 영성을 증거해 왔다. 또한 몇몇 남자, 여자 수도회가 자신들의 카리스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는 물론 남녀 수도장상연합회 차원에서도 정의평화와 환경 생태 분야를 통합하여 활동을 지속해 가고 있다. 평신도 사도직협의회에서도 정의평화와 도농협력 분과를 두고 생태 복음화와 관련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sup>9)</sup>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특히, 우리 교회가 환경과 생태 영역에서 활동 기구를 갖추고 활동을 수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 시대에 요청되는 생태 복음화의 비전과 효과적인 투신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반성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생태 운동에 투신해 온 여러 활동가들에게서 오늘 이 시대에 가톨릭 교회 내에 참으로 생태 영성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의와 생태 영성을 내실있게 구현해 가는 운동이 있는가 하는 비판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sup>10)</sup> 예컨대 이동훈 신부는 천주교 환경연대 제1차 정기총회 때 발표한 논문에서 가톨릭 환경운동의 현주소를 이렇게 지적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환경운동에도 불구하고 ... 단순히 사회운동의 부문운동 정도로 인식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느님의 피조물인 자연환경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교회의

8) 정홍규, 산처럼, 대건인쇄출판사, 2003, 350-1 참조.

9) 김홍진 신부가 환경부의 의뢰로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실시한 종교사회단체들의 환경활동 활성화에 관한 연구(2001)에 기고한 “한국천주교 환경운동의 역사와 현황”에 각 교구별 활동 상황이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http://www.me.go.kr/user/part/part\\_period\\_detail.html?img\\_id=489&av\\_code=&av\\_dept=0200](http://www.me.go.kr/user/part/part_period_detail.html?img_id=489&av_code=&av_dept=0200).

10) “천주교환경연대 창립선언문”(2002년) 참조.

지도자나 신자들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이다. ... 환경보전의 임무가 신앙인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인식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생활 속의 실천에만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영성으로 드러나는 운동이 없었다. ... 가톨릭 환경운동은 환경운동을 신앙인의 본분으로 인식하는 창조영성, 생태영성을 진작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하지 못하고 사회 환경단체의 활동과 차별성을 구현해 내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내부적인 생태신학적 논의가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각 교구의 환경교육의 내용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듯이 환경교육의 대부분이 올바른 먹거리, 재활용, 개발 사업의 부당성 등의 실천적인 부분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윤리신학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신학의 부재가 운동을 영성화로 이끌지 못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우리 교회의 이런 진단에 근거하여 이동훈 신부는 우리 교회가 환경운동을 시도하면서 지향할 과제를 종교성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첫째, 영적인 경건, 둘째, 탐욕에 대한 절제, 셋째, 자발적 가난과 청빈, 넷째, 천박한 유물주의로부터 탈피.<sup>12)</sup> 황창연 신부가 우리 교회의 환경운동이 신앙과 접목된 형태일 것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생활문화운동으로 방향지어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동훈 신부의 이같은 과제 인식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3)</sup>

천주교환경연대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던 가톨릭 교회 내의 환경운동 단체들이 2002년 6월에 결성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주체들 상당수가 교구별로 활동하면서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다가 전국환경사제모임이 2001년 11월에 연대안을 공론화한 것을 계기로, 2002년 1월 14일에 천주교환경사목 전국 연대망을 구성할 것을 목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어서 2월 18일에 천주교 환경연대 결성을 위한 첫 준비 모임을 갖기에 이른다. 이후 5차에 걸친 준비 모임 끝에 그동안 교구별로 활동하던 단체를 넘어서서, 환경사목 활동 단체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일차적인 목표로 2002년 6월 3일, 환경의 날을 맞아 천주교 환경연대를 창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연대체에는 수도자와 성직자, 평신도 가운데 환경과 생태 영성 전문가와 연구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천주교 환경연대로 대변되는 환경 생태 복음화 활동가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당면 목표를 제기하였다. 하나는 가톨릭적 성격을 구현할 생태 영성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활동 과정에서 확보해 가는 정보와 방법, 필요한 지식 등을 전국 단체들이 공유하면서 활동의 효과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둘째 목표는 실천적 관점에서 그동안 환경연대 실행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꾸준히 추구되어 왔는데, 이동훈 신부는 이 가운데 첫째 목표와 관련하여 제1차 정기 총회 때 발표한 논문을 통하여 특히 주목한 바 있다. 그는 여기서 “가톨릭 환경운동의 방향”을 기본적으로 “생태영성운동”에서 보고 있다.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한 환경운동은 단순히 환경오염을 줄이는 자연보호운동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생명운동이라는 확고한 신념 위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4)</sup> 그는 “피조물은 성령의 감실”

11) 이동훈, “가톨릭 환경운동의 방향과 과제,” 2003년 천주교환경연대 제1차 정기총회 자료집, 48.

12) 같은 자료, 49.

13) 2004년 천주교환경연대 생태피정 강연 자료: [http://ecocatholic.or.kr/main/bbs.php3?table=\\_pds\\_10&query=view&action=re&l=3](http://ecocatholic.or.kr/main/bbs.php3?table=_pds_10&query=view&action=re&l=3); 창립선언문도 참조.

14) 이동훈, “가톨릭 환경운동의 방향과 과제,” 53.

이라는, 달리 말해서 “하느님께서 피조물 안에, 피조물을 통하여, 피조물과 함께 계신다”는 영성적 자각을 생태영성의 토대로 인식한다.<sup>15)</sup> 가톨릭 생태 복음화 운동은 이 기초 위에서 “영적인 경건”과 “탐욕에 대해 절제,” “자발적인 가난과 청빈,” 마지막으로 “천박한 유물주의로부터 탈피”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하리라는 것이다.<sup>16)</sup>

이것은 앞으로 가톨릭의 환경 생태 운동이 나아갈 기본 방향을 시사하는데, 우리는 이런 전망을 구현할 구체적인 대안들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 또한 이같은 전망에 근거하여 생태 복음화를 역동화하는 데 요청되는 영성 교육의 한 구체적인 사례를 마지막 장에서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먼저 이땅에서 전개되어 온 생태 환경 복음화의 역사를 현대 한국 가톨릭 역사에서 등장한 주요 운동 주체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개관하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교회에 생태 복음화를 보다 더 심화할 결정적 계기가 원주 교구를 통하여 1980년대 초에 일정하게 마련되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를 지속시켜 가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실패에 뒤이어서, 교회 안에서 다시 전개되기 시작한 생태, 환경운동이 이미 형성되었던 생태 복음화의 전망을 전혀 계승하지 못한 채 다시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비효율적인 시행착오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 역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이동훈 신부가 제기한 것과 같은 비판적 과제들은 1980년대 초 원주교구에서 형성한 유기농법과 소비조합운동에 관한 실천적 비전을 가톨릭신앙 전통과 통합하는 시도를 통하여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연대의 축복을 누리는 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자기의 역사를 존중하지 못하는 운동이 얼마나 비효율적일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2.2. 생태 복음화를 향한 여정<sup>17)</sup>

위에서 거의 전국의 교구들에 나름대로 생태 복음화의 전망을 실천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한국교회 안에 이 분야에서 활동했던 선구적인 노력들이 전국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한국 가톨릭 교회 내에서 형성되어 온 생태 복음화의 여정을 간략히 개관하기로 한다.

### 2.2.1. 가톨릭농민회와 우리농촌 살리기운동

고요한 23세는 1961년에 회칙, <어머니요 스승>을 발표하였는데, 그는 여기서 농업의 침체 속에서도 농업이 갖는 가치에 관하여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다: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발전과 문화 증진과 사회진보의 주역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바로 농민들 자신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농민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유지해가는

15) 같은 글, 51.

16) 같은 글, 49.

17) 이하의 내용은 *Asian Christian Theologies* (3권: ISPCCK/ Claretian Publishers/ Orbis 공동 출판, 2004) 시리즈에 가톨릭농민회와 우리농촌 살리기운동을 소개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가 2003년에 제공한 자료와 김홍진, “한국천주교 환경운동의 역사와 현황”을 기초로 구성된 것이다.

농업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가를 알고 또 깨달아야 한다. 마치 세상의 드넓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은 흔히 동식물의 생명에 관련되어 있다. 무한한 의미를 지닌 듯한 동식물의 생명은 어김없이 확고한 법칙을 따르며 창조주시오 섭리자이신 하느님께서 이끌어주는 풍요로운 초대를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 노동은 인류를 먹여 살리는 여러 가지 식량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농업 노동은 인류를 먹여 살리는 여러 가지 식량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공업에 사용되는 수많은 원료를 날이 갈수록 더욱 풍부하게 마련해 준다.<sup>18)</sup>

이같은 안목은 오늘 이 시대에는 물론, 해방 이후 19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 교회에서 농민 사목의 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을 역동성을 갖고 있다.

당시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외국자본과 국내의 대기업들에 의존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고도성장과 급속한 경제규모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따랐고, 도시 노동자들과 빈민들을 위하여,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주들을 위하여 저곡가 정책이 실시되면서 농업과 농민이 정책적으로 소외당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 전체의 경제구조가 대도시에 집중된 경공업 체제로 개편되면서 급격하게 도시화가 발생하고, 이런 속에서 이농 현상이 극심해져서 “1960-1970년 기간 중 농가인구 250만 명이, 농가 호수에서는 60만호 이상이 농업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sup>19)</sup> 이러한 정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위와 같은 세계 교회 지도부의 비전과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열린 사목 정신에 따라서 민중의 삶과 현장을 자신의 복음화 정책에 통합시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가톨릭농민회가 탄생한 것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였다.

한국 교회는 가톨릭노동청년회 산하에 1964년 10월에 농촌 청년부를 결성한 데 이어서 1966년 10월에 보다 더 독립적인 가톨릭 농촌 청년회를 조직하였다. 이후 1971년 8월에 “선진국 농업의 생산 과정과 한국 농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조직과 활동을 농민 주체적인 관점에서 전개하기 위하여 1972년 3월에 “가톨릭농민회”를 출범시키게 되는데, 이때까지를 한국가톨릭농민운동의 초창기로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의 계몽적 농촌활동 단계라고 할 수 있다(1964-1971).<sup>20)</sup>

가톨릭농민회의 제2기는 농민회가 1972년 3월에 독립적으로 출범한 이래 1990년 무렵까지 전국 단위 농민 운동 단체로 활동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1972-1990년). 가톨릭 농민회의 제2기는 이를테면 70년대 초 80년대 말까지 한국사회가 인간 존엄 회복과 민주화를 구현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가톨릭농민회는 이 과정에서 농민 인권 신장과 민주화에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군사 정권의 극심한 탄압을 겪어야 했다.<sup>21)</sup>

가톨릭 농민운동의 제3기는 1990년 4월에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출범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개시되는데, 이때부터 가톨릭 농민회는 생명운동과 공동체운동의 비전을 농민운동에 통합해 가고자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보다 더 유연한 형태로 생명농업과 우리농촌 살리기운동을 전개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전환의 계기는 1990년 2월 제20차 대의원회의에서 마련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22)</sup>

18) 요한 23세, 어머니요 스승 (1961), 144항.

19) <http://www.kcfm.or.kr> 자료실에 소개된 가톨릭농민회 30년사 태동기(1964-1971)의 “시대배경” 중에서.

20) 가톨릭농민회 30년사, “제1부 태동기” 참조.

21) 가톨릭농민회 30년사, “제2부 성장기”와 “제3부 성숙기,” 제4부 고양기“ 참조.

한국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당시 불모지였던 농민주도형 농민 운동의 씨앗을 뿌리고, 분회를 중심으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조직을 구성하여, 농민권익보호와 농촌민주화활동, 나아가 사회민주화운동까지 전개해나갔다.

둘째, 한국가톨릭농민회 활동을 통해 지역 교회가 농민과 함께 교회 고유의 예언자적 사명과 그 실천을 이끌어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셋째, 1990년대에 전국 단위의 새로운 농민운동 주체가 출현함에 따라, 운동의 성격을 “생명·공동체운동”으로 새로이 정하고, 이에 부응하여 새로운 운동, 곧 도시민과 농촌 생산자 사이의 직거래운동, 우리밀 살리기운동, 귀농운동, 우리농촌 살리기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당시 농민운동들이 일반적으로 대안을 소홀히한 채 투쟁일변도의 활동을 전개한 데 비해서, 가톨릭 농민회는 구체적으로 교회와 농민이 함께 농업과 농촌을 살릴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 운동의 복음적 성격은 바로 이런 운동 비전과 실천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가톨릭 농민운동은 우리농촌 살리기운동을 통해 도시생활자와 함께 땅과 밥상, 농촌을 살리고 창조질서보전을 위한 실천적 대안과 전형을 제시하였고, 또한 교회내적으로 농민주일 제정에 기여하였는데, 이런 것들은 가톨릭 농민회의 실천적 신앙운동의 사례로 일컬어질 수 있을 것이다.<sup>23)</sup>

이와 같은 활동 평가에 근거하여 가톨릭 농민운동과 우리농촌살리기 운동의 미래를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 “21세기는 대안문명으로 농업적 가치와 생태적 삶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가톨릭 농민운동과 우리농촌 살리기운동의 공감대가 확산될 것이며, 또한 도시 생활자들의 안전식품에 대한 요구 증대와, 식량위기 시대 도래에 따른 식량문제 해결의 요구 또한 증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가농 우리농 운동은 녹색기지(우리농마을) 건설을 통한 지역농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농촌교회 모습과 농민사목의 방향 또한 제시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생활 공동체들의 모임으로 새로운 교회상 마련과, 식량과 환경, 에너지, 균축, 평화, 신자유주의 대항운동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교회 NGO단체로 발전할 전망이다.”<sup>24)</sup>

## 2.2.2. 원주 교구 농민사목

우리는 위에서 1960년대부터 시작한 가톨릭 농민회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1970년대 이래 지역 사회 개발 운동을 생태 복음화의 전망과 통합할 구체적인 사목 실천을 보여준 원주교구의 경우를 검토하기로 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22) 가톨릭농민회 30년사 가운데 “제5부 전환기-1990년~ 현재” 참조.

23) “우리는 ‘농촌살리기운동’이야 말로 우리의 믿음과 생활을 일치시키는 ‘참 좋은 공동체’를 실천하고 지향하는 ‘믿는 이들의 삶의 자세’라고 고백합니다. 도시교회와 농촌교회는 ‘일용할 양식’을 중심에 놓고 참된 나눔과 형제적 연대를 구체화할 것입니다. 창조질서를 보전하기 위해 수많은 생활공동체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들의 공동체인 한국천주교회는 도·농 공동체 활동과 창조질서보전활동이라는 두 기둥을 축으로 우리 사회전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회복음화에 정성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창립 선언문”: [http://www.wrn.or.kr/environment/wrn\\_03.asp](http://www.wrn.or.kr/environment/wrn_03.asp)에서.

24) *Asian Christian Theologies* 시리즈를 위한 증언 자료.



중반부터 역동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생명-생태 운동이 원주 교구의 생태 농민사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1972년 8월에 강원 남부와 경기 여주 양평, 충청북도 제천 등지에 수해가 발생하였다. 이때 원주 교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세계에 열린 정신과 종교 대화의 정신에 따라서 교회의 담을 넘고 종교를 초월하여 전지역민을 대상으로 구호와 개발 사업을 전개하였다. 독일의 미제레울과 가리파스의 지원으로 시작한 부락 개발 중심의 “재해대책사업”을 펼쳤는데, 이 사업은 1. 긴급 식량 구호, 2. 전답 복구, 3. 부락 개발, 4. 지역 개발의 네 단계로 기획되었다.<sup>25)</sup> 원주교구는 1979년 10월에 이 사업을 이끌던 재해대책위원회를 사회개발위원회로 개편하였고,<sup>26)</sup> 이런 토대 위에서 지역개발과 복음 실천을 통합해 가는 형태로 “소비자 협동조합의 확장과 지역 차원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체계화하였다.<sup>27)</sup>

이 과정에서 원주교구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단순히 신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원주교구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 공무원과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실사에 근거하여 그리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농촌과 광산촌에서 조합운동과 부락 개발 사업이 뿌리내리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sup>28)</sup>

원주 교구가 앞장선 사회개발사업에서 생태 복음화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것은 1980년을 전후해서 벌써 유기농법과 무공해 재배법 등을 보급하여 새로운 농업관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원주 교구는 1979년에 계획하기 시작하여 1980년 6월에 네덜란드 세베모(Cebemo)의 지원을 받아 일본, 대만, 홍콩 교구와 연계하여 당시 사회개발위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농촌개발 사업관계자 선진지 시찰”을 추진하였다.<sup>29)</sup> 이는 농업 선진 지

25) 이 가운데 1979년까지 핵심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부락 개발 사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 원리에 따라 진행되었다: 첫째, 부락개발 사업 자금 지원, 둘째, 부락내 개발 가능한 자연자원과 인적 자원의 활용 극대화, 셋째,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발생시킬 공동 사업화, 넷째, 협동적 개발: 원주교구 30년사, 1996, 332. 가톨릭시보 창간 50주년 기념 특별기획 전국교구탐방기-원주교구편 2, “지역사회 개발의 선봉” (1978년 8월 20일) 참조.

26) 원주교구 30년사, 333-4.

27) 소비자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 농촌지도자 교육, 그리고 우리 농촌에 대한 관심과 우리농 운동에 대한 각각의 고취 등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원주교구 30년사, 334와 338 참조. 원주교구는 일본 가톨릭 교회의 가리파스의 지원으로 1982년에 원주 소비자 협동조합 협의회 회장 경근호와 사회개발위원회 위원장 이흥근 신부가 이 협의회에 운영기금을 지원하는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28) 재해대책사업위원회는 지학순 주교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중앙위원회와 김영주가 책임을 맡고 있던 실행위원회, 그리고 지역별 지구위원회로 세분되어 있었다. 중앙위원회의 위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학순 주교(천주교 원주교구장), 양대석 신부(천주교 원주교구 상서국장), 오미카엘 신부(천주교 문막본당 주임), 이기준 목사(원주 연합 기독교병원), 전영춘 실장(강원도 기획관리실), 유용기 실장(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엄한준 사장(원주문화방송주식회사), 장화순 교장(진광중·고등학교), 김영주 실장(원주교구청 기획실). 사업의 규모에 관해서는 원주교구 30년사, 185-8 참조.

29) 1980년 3월 12일자로 발송된 “농촌개발 사업관계자 선진지 시찰 계획”은 그 동기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동기

- 원주교구는 농촌소비조합 육성사업을 담당할 직원들을 정하고 이들과 긴밀히 협조해갈 협조자들도 결정했다.
- 이들 담당자와 협조자들에게는 사업추진에 앞서서 사전교육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물론 이미 추진되고 있는 농촌소비조합을 견학하고 그 경험을 받아드려야(sic) 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농촌에 소비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으며 오직 정부 주도 아래 농협에서 구관장을 경영 중이다.

목적

- 1) 선진국가의 농촌개발사업과 소비조합 육성사업을 견학하므로써 앞으로 언젠가 한국농촌이 맞이할 모습을 미리 예측케 하여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며

역을 찾아가서 그곳의 영농법과 유통 구조,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 등을 직접 돌아보고 배움으로써 이를 교구 농민사목과 교구 내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 5월 광주 사건을 겪으면서 이 계획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원주교구는 이것을 재추진하여 1981년 5월 29일부터 6월 21일까지 위에서 언급한 세 나라를 찾아가서 직접 유기농 현장과 소비조합 운동을 견학할 기회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sup>30)</sup>

이 연수를 마치고 나서 원주교구 사회개발위원회는 생명운동과 생활협동조합운동을 보급하기 위하여 일본 “유기농업운동” 자료들을 편집, 발간하였다. 또한 일본 생협에서 판매하던 “현민공제”를 소개하기도 한다. 이 두 자료 모두 연대 미상이나, 두 자료의 발간 주체를 통해서 이 자료들이 발간된 시기를 일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 두 자료는 모두 원주교구 사회개발위원회를 발간자로 명기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1983년 10월에 원주교구에서 새로 설립한 사회사업국에 통합되었다.<sup>31)</sup> 그러므로 이 점을 고려한다면, 위의 두 자료는 늦어도 1983년 10월 이전에 발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원주교구는 1981년의 연수 결과를 이와 같은 자료집을 통하여 곧바로 원주교구민과 지역 주민사회와 공유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김현장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현장은 1982년 3월에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원주교구 최기식 신부가 방화를 일으킨 문부식과 김은숙을 자수하게 하면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는 “전두환의 광주 살육 작전”이라는 유인물을 통하여 1980년 광주 사건을 전한 이래 정인재의 도움으로 원주에 와서 최기식 신부의 보호 하에 교구 교육관에서 숨어 지내다가 이 사건의 여파로 자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 은신 과정에서 원주교구에서 이미 농민 대상 강좌 가운데 신협이 회계 교육은 물론 유기 농법을 통한 무공해 농작물 재배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을 목격하여 이를 증언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sup>32)</sup> 그의 이 같은 증언은 원주교구가 이미 1979년부터 일본 등지에서 이러한 유기농법과 소비조합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또 1981년에는 이를 실행하여 연수 결과를 교구 자체로 실시하던 농민 교육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준다.

원주교구는 다시 1984년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일본 가톨릭 까리따스와 당시 지학순 주교가 총재로 있던 한국 가톨릭 인성회의 지원으로 “일본 유기농업운동과 생활협동조합운동연수”를 실시한다.<sup>33)</sup> 이때는 원주교구 사회사업국 관계자들은 물론, 전국 규모의

2) 농촌개발과 소비조합육성의 단계별 전략과 실제 운영상황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조직방법을 배우게 하고

3) 단계별 발전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과 그 해결 경험을 배워서 한국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4) 출발 전 회합을 통해 중점적으로 담당해야 할 일을 분담하여 시찰후 종합평가 회합을 통해 종합평가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농촌개발과 소비조합 육성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재확인하고

5) 원주교구가 추진하고자 계획중인 소비조합 육성사업 계획을 수정할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6) 시찰지 및 사업에 대한 자료 수집과 사진 촬영 필립을 편집하여 슬라이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현장교육에 활용토록 하고 수집된 교안을 검토하여 각종교육에 활용토록 한다.

30) 이때 참가한 인물들 9인 가운데 7명이 원주교구 사회개발위원회 소속인데, 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영주, 박제일, 이경국, 김상범, 박양혁, 김현일, 정인재(후에 합류). 이외에도 최희웅 원주 밝음신용협동조합장과 가톨릭농민회 소속으로 한 마리아가 참가하였다: 1981년 5월 13일자로 지학순 주교가 홍콩 교회 관계자 Peter Cheung에게 보낸 공문 참조.

31) 원주교구 30년사, 310과 333-5 참조.

32) 지학순정의평화기금 엮음, 그이는 나무를 심었다, 공동선, 2000, 261-2를 보라.

신협 관계자들, 그리고 안동교구 농민사목담당자와 가톨릭농민회의 회원들도 참여하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진 농업의 실상을 보다 더 폭넓게 증거 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것은, 장일순과 김지하 등의 주체적 사상과 더불어,<sup>34)</sup>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한살림운동과 생태 운동의 한 중요한 토대가 되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5)</sup>

실제로 1985년 1월에 연수 경과보고에서 일본 유기농업 실태를 보고 충격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주 33에서 피력된 내용 이외에 좀더 정리된 반응들을 이 보고서에서 만날 수 있는데, 이런 충격은 1985년에 즉각 원주를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를 잇는 사업을 개시하는 시도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원주교구 연수 팀은 유기농업 보급과 소비자 협동조합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보고를 남기고 있다:

1) 유기농업을 개별적으로 6곳, 협동적으로 5곳에서 시작하였다.

33) 이 연수가 끝난 후에 “한국 농민지도자 일본 유기농업 연수 시찰단”이 일본에서 발표한 소감을 요약해 놓은 내용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에서 들은 일본보고는 다른 일본을 발견했다. 상냥하고, 친절하고, 인간적인 사람들과 만난 것은 기뻐다.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일본이 탄생된 것같은 기분이다.
  2. 일본의 유기농업 실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
    - 1) 생산자의 생명 존중 정신과 그 운동의 진행 방법
    - 2) 소비자의 높은 의식과 활발한 조직 활동
    - 3) 훌륭한 지도자들과 희생 정신
    - 4) 운동의 전국적 연대와 확대
  3. 여러 가지 공동체, 협동조직을 보고 참고가 되었다. 모두 그리스도교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데, 교회의 영향을 표면적으로는 볼 수가 없었다. 없는 것이냐?
  4. 한국 가톨릭 교회의 생명운동은 실천적 생활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지 않으면 실패의 위험이 있다.
  5. 경제 일본도의 발전은 인간의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험을 배워서 경제 향상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방법에 의해 살아가고 싶다.
  6. 농업의 기계화는 반대하지 말고, 고도의 기계와 문명을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이용해 가야 할 것이다.
  7. 귀국 후 정기적 모임을 갖고 유기농업 정신 즉 농업에 그리스도 정신의 실천을 연구, 확대하여 갈 결심이다.
  8. 양국의 교회 지도자에게 감사한다.
- 한국 인성회 담당 지학순 주교에게 도시 교회의 주부 즉 소비자의 조직과 교육을 빨리 시행해 나가 주기를 건의한다.
- 까리따스 자판(원문대로), 일본 교회에 명년에 한 번 더 우리와는 별도의 그룹에게 같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한국 농촌 교회에 유기농업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 연수에 참여하였던 지도자들은 1985년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원주교구 교육원에서 모임을 갖고 지학순 주교에게 연수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들은 1985년 5월에 다시 일본 유기농업운동과 생활협동조합운동 연수를 다시 계획하면서 “한국에서 이런 운동을 뿌리내리고 발전시켜 가는 데 21명으로는 부족한 형편”이라는 자각하에 농민지도자들을 다시 선정하여 파견하기로 하였다. 원주 한살림이 1985년에 시작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한 한 결정적 계기가 이럴테면 지학순 주교가 김영주를 통하여 기획하여 교구 사회개발위원회와 사회사업국 주관으로 관철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준 이같은 일련의 일본 유기농업과 생활협동조합운동 견학을 통하여 마련되었던 것이다. 앞의 주 53??도 참조.

34) 최성현, 좁쌀 한 알-일화와 함께 보는 장일순의 글씨와 그림, 도술, 2004, 35와 김지하, 흰 그늘의 길 3, 학교재, 2003, 51 참조. 김지하가 증언하는 것처럼, 장일순과 김지하, 박재일, 정호경, 제정구 등이 뜻을 모아 “생명사상 세미나”를 기획하여 이끌어 갔던 자리가 원주교구 교육센터였다.

35) 이동훈 신부는 원주교구가 사회개발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유기농과 도시와 농촌 직거래운동 등을 전개하고 이것을 토대로 원주 지역 시민운동체들이 원주 소비자협동조합을 통하여 한살림운동으로 확산되어 가게 된 것을 주목한 바 있다. “가톨릭 환경운동의 방향과 과제,” 천주교환경연대 1차 정기총회 자료집(미출간, 2003), 47 참조.

- 2) 소비자협동조합을 5개 조직하였다. 또한 무점포 소비자협동조합을 원주 시내에 조직해 가고 있다.
- 3) 유기농업에 관한 간단한 유인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연수 때 짙은 슬라이드를 편집하여 교육이나 모임 때 활용하고 있다.
- 4) 1985년 2월 4일 원주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100여 명의 농민이 참석하였으며 반응이 좋았다.
- 5) 1985년 2월 25일-3월 4일. 경기도 발안에서 농촌공동체(일본 山岩會) 연찬이 있었다.
- 6) 1985년 1월 18일-24일. 동경 생활구락부 생협 기획실장(金令木) 외 4명이 한국을 방문, 농촌과 도시의 협동조합간의 협동에 관해서 연수를 실시하였고, 한국의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7) 1985년 4월 4일-7일. 기옥현 현민공제생협 전무(正木) 외 3명이 한국을 방문, 한국에서 공제협동조합운동에 관해서 연수를 하였고, 한국 신용협동조합 연합회가 이 운동을 추진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8) 오는 6월 9일-11일. 市島 유기농업 회원과 神戸 소비자그룹 일행 30여 명이 한국농촌과 유기농업을 보기 위해 한국에 올 예정이다.

말하자면, 1985년 초에 원주에 훗날 “한살림” 매장으로 전환되는 소비자협동조합이 세워지고,<sup>36)</sup> 1986년 12월에 서울에 “한살림농산”이라는 상호로 매장이 세워지게 된 구체적 계기가 1984년 말에 원주교구가 실시한 유기농·생협 연수를 통해서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런 토대 위에서 원주교구 사회사업국은 다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였다:

유기농업과 협동조합을 확대시켜 간다. 도시 소비자-특히 도시 교회 주부들-로 하여금 생활협동조합을 조직하도록 노력한다. 농촌과 도시 교회 공동체간의 만남과 나눔을 실천해 간다. 각자 여건에 맞는 유기농업 또는 협동조합 활동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 일년에 1회 이상 전체 모임을 갖고, 서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해 간다. 확보된 사진, 슬라이드, 비디오, 책, 유인물 등 각종 자료를 정리하여 교육, 홍보 자료로 활용한다. 앞으로 계속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양국간의 유대와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간다.<sup>37)</sup>

이것이 1985년 4월에 원주교구 사회사업국이 생태 농민사목과 관련하여 계획한 미래 비전이었다. 그러나 이 비전은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 영성 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 안팎의 민중들과 더불어 현대적인 안목으로 복음화를 기획하고 실천할 영성과 조직 구조를 마련할 신학과 영성의 성숙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원주교구는 매우 일찍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위계형 사목구조를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사목 구조를 조직화하는 데 헌신하였다.<sup>38)</sup> 그러나 평신도들 가운데 일부만이 아니라 평신도들 일반이 그

36) 한살림 홈페이지에 소개된 “한살림의 역사”에 따르면, 그 시기는 1990년 2월이다: <http://www.hansalim.or.kr> 참조.

37) 천주교 원주교구, “일본 유기농업 운동과 생활 협동조합운동 연수 계획” (1985년 4월) 중에서.

38) 황종렬, “지학순 주교의 인권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학적 성찰”(원주교구설립 40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5년 3월), 57-61 참조.

들의 지역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사회와 이웃에게 복음의 가치를 배어들게 하는 제도적 틀까지 이루어내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를테면, 원주교구가 저렇게 선구적으로 생태 농민 사목의 비전을 형성하고 지역사회로 하여금 생태 영성과 생명운동의 사상적, 영농적, 조직적 토대를 갖출 원천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회 내에서는 이를 활성화하는 데 실패하고만 만 데는 성숙한 영성과 그 체화를 통하여 생동형 복음화 지평을 형성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원주교구에서 선구적인 농민사목을 통하여 형성된 생태 복음화의 전망은 한살림운동을 중심으로 시민 생태 운동이 발전해 가는 데 한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sup>39)</sup> 이런 비전이 김승오 신부 등을 통하여 가톨릭농민회와 연대하여 우리농촌살리기 운동이나 우리밀살리기 운동 등을 전개하는 데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까지의 원주교구의 농민 사목 전통은 199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계승되지 못하였다. 이런 현상은 원주교구에서만 아니라 다른 교구들의 생태 사목 활동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원주교구의 농민 사목 전통이 교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그대로 역사 속에 묻히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 2.2.3. 한마음한몸운동과 하늘·땅·물·벗 운동

1989년 10월 4-8일에 서울에서 제44차 세계성체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서울대교구를 중심으로 “한마음한몸”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이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눔을 현대 세계에 육화시키기 위하여 1988년 10월 주교회의의 의결을 거치면서 서울대교구를 중심으로 펼쳐졌다.<sup>40)</sup> 성체성사의 정신을 실제 삶과 연결시켜 실천함으로써 성찬의 신비를 구현하고자 하는 운동으로서, 인종과 종교, 사상과 국경을 초월하여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이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투신해 왔다.

“한마음한몸운동”은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그리스도 신앙을 우리 문화 속에 뿌리 내리면서 한국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신앙 공동체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데 길벗이 되고 이웃들이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남과 북의 갈등으로 집약되어 온 세계 빈부의 대립과 동과 서의 갈등으로 집약되어 온 이념의 대립을 극복하여 민족과 세계 속에 그리스도의 참 평화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운동 이념을 갖고 있었다.<sup>41)</sup>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한마음한몸 운동은 그 자체로 생태 영성의 안목을 갖추고 이런 비전을 통합하고자 하는 명시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속에서 서울대교구 출신으로서 당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이재돈 신부 등을 중심으로 시대 상황 속에서 요청되었던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사목 비전에 통합하고자 하는 관심이 가시화되어 갔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하늘·땅·물·벗” 운동이 1991년에 태동하게 되고, 이 운동의 주체들이 한마음한몸운동 본부의 활동을 생태 복음화 차원과 연결하기에 이른다.

한마음한몸운동을 시작할 무렵인 1989년 12월에 고요한 바오로 2세가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 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1990년 1월 1일 세계평화의

39) 김홍진, “한국천주교 환경운동의 역사와 현황” 가운데 머리말 참조.

40) “한마음한몸운동은 우리의 문화와 삶의 언어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찬의 뜻을 알아듣고 이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이른바 “한국적 성체 신심”을 이루는 계기로 시작하게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41) 한마음한몸운동 홈페이지: <http://ohobm.catholic.or.kr/ohobm0/Main0.htm>.

날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생태 복음화의 실천을 세계 교회에 요청한다. 1990년 3월에는 서울에서 JPIC(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 정의·평화·창조질서 보존) 세계 대회가 개최되고, 1991년 3월에는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한 결정적 시발점으로 작용한 낙동강 폐물 사건을 겪게 된다. 이런 신학적, 사목적, 사회적 시대 배경 속에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한마음한몸운동 생활실천부에서는 1991년 6월 19일에 타 종교인들과 공동으로 창조질서보전과 완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sup>42)</sup> 이를 계기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제, 수도자, 평신도 실천가들이 함께 앞에서 언급한 “하늘땅물벗”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sup>43)</sup> “하늘땅물벗”이라는 이름에는 “하늘땅물을 사랑하는 벗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사람이 하늘땅물로 상징되는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느님의 우주적 집안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자각이 동시에 배어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늘땅물벗은 한마음한몸운동 생활실천부의 환경운동분야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면서, 재활용과, 도농 직거래, 그리고 무공해 비누 만들기 등을 교회의 신앙실천에 통합해 갔다. 이와 같은 친환경 신앙실천을 통하여 창조된 자연 세계의 기쁨을 되찾는 한편, 이를 통하여 형성한 기금을 사회와 함께 나눔으로써, 하느님의 인간 가족과는 물론 자연 가족과도 더불어 사는 생명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문제에 관한 월례강좌와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미사,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천주교 자연학교와 성인, 청년들 대상의 천주교 환경학교 등을 열어서 생태 의식을 고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 환경상 시상과 해외 환경 전문가 초청 강연회, 사순, 대림 환경 특강과 현장체험 활동, 사회 환경 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생태 사목을 매개로 교회와 사회를 상호 소통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1994년 중반 이후 한마음한몸 운동본부는 환경운동 팀을 환경보전부로 독립시켜 전문위원회를 두면서 하늘땅물벗 모임을 해체하였다. 현재 이 운동에서 전개하던 활동은 서울대교구의 환경 사목 기구에 흡수되어 운동의 성격을 상실한 상태이다. 그동안 이 단체와 연대하였던 활동가들 가운데 일부는 천주교환경사제모임과 연대 활동을 지속하였고, 일부 활동가들은 환경보전부 전문위원으로 남게 된다. 이후 1999년 1월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내의 환경보전부를 교구 환경사목위원회로 독립시켜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내에 환경사목위원회를 창립하기에 이른다. 이를테면 오늘의 환경사목위원회는 1991년에 결성된 하늘땅물벗의 활동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하늘땅물벗이라는 명칭은 2000년부터 각 본당에서 환경운동과 우리농운동을 전개하는 활동가들을 위한 입문교육의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각본당에서 환경운동이나 우리농운동을 실천하는 단체의 명칭으로 사용(예:하늘땅물벗 돈암동본당 생활공동체)되고 있기도 하고, 각본당 우리농 매장의 이름으로 사용(예:하늘땅물벗 목동매장)되기도 한다.<sup>44)</sup>

42) 이 공청회에 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김홍진, 위의 글, “천주교 환경운동의 태동” 가운데 “창조질서 보전 및 완성을 위한 공청회” 부분 참조.

43) 이하의 내용은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의 메일 회신 자료에 의존하였음을 밝힌다.

44)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하늘땅물벗을 본당 단위의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기반으로 자리잡게 하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다음과 같은 노력을 펴하고 있다: 조대현, “본당 중심의 생활공동체 운동”(본당 생활공동체 활성화 교육자료집: 미출판)에서 인용.

1) 사목회내 도농협력분과 구성하기/중심주체 만들기: 본당 신부님의 추천으로 우리농 운동에 관심있는 사람을 교구단위의 활성화 양성교육(하늘땅물벗 강좌)에 참여시키고, 수료생을 중심으로 본당 사목회 내 도농협력 분과위원회 또는 우리농 단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례화 시킨다.

2) 전신자 대상 의식전환 교육 마련하기: 도농협력분과위원회 또는 우리농 단체는 본당 신부님과 협의하여 우리농 운동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이끌어 가기 위한 기초교육으로 본당내 전신자 대상 교육을 마련한다. 주

### 3. 생태 복음화 모델

지금까지 “생태 복음화”라는 명시적인 주제 의식 없이도 이같은 비전과 연계된 사목 활동을 펼쳐온 역사를 돌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점차 뚜렷하게 생태 영성에 대한 의식과 감각을 성장시켜 왔는데, 아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도시 본당과 산간에서 실천되고 있는 생태 복음화 사례들을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생태 영성을 사회 복지와 통합한 사례와 하느님의 손길이 닿은 자연과 우주 속에서 하느님과 자기를 발견하는 교육의 지평을 열어가는 모델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 3.1. 도시 본당 모델: 대구대교구 고산 본당 공동체<sup>45)</sup>

##### 담장 허물기

대구대교구 정홍규 신부는 1990년부터 “푸른평화” 운동을 시작한 이래 생태 복음화 영역에서 선구적으로 활동해 왔다. 정신부는 2002년 2월에 대구 지역 고산 본당 주임으로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성당 담을 허무는 일을 공동체와 더불어 실행한다. 고산 본당은 5백 평쯤 되는 대지에, 약 천 삼백 명의 신자들이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현재 한국 교회의 도시 본당 가운데 아주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의 공동체이다. 마을 사람들은 큰 도로에서 주거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매호천이라는 하천을 건너야 하는데, 성당은 이 하천에 놓인 다리 앞에, 마을을 기준으로 하면 하천 건너편 대로 쪽에, 세워져 있다. 이를테면 성당이 매호천 주변 지역 주거지의 길목에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출퇴근이나 일을 보러 다닐 때, 혹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갈 때, 모두 성당 앞으로 해서 다닌다. 이런 상황에서 성당과 지역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서 주민들이 성당을 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담장을 허물기로 뜻을 모으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체 모독이나 도난, 혹은 안전 문제로 신자들 가운데 일부가, 그리고 수도자들 편에서 담허물기를 꺼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담장을 허물고 나서 2005년 봄 현재까지 그런

일 매미사 강론, 사순대림특강, 본당단위 녹색학교, 구역반장단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3) 물품나누기: 도농협력분과위원회 또는 우리농 단체는 본당신부님과 협의의 통해 주말장터부터 열어 가능하고 안전한 품목을 서울교구본부 물류센터로부터 공급받아 물품 나눔을 시도해 본다. 농산물의 취급요령을 습득하고, 먹는 행위로 운동에 동참시키며, 나아가 가능한 공간에 상설직매장을 마련하거나 생활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지역사회에 선교기능도 겸할 수 있다.

4) 자매결연과 인적교류하기: 물적교류에 앞서 산지방문이나 일손돕기, 녹색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생산자공동체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인간적 만남과 나눔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 상호이해와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한다. 농촌생산자와 도시소비자가 서로의 정다운 얼굴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해 생산하고, 감사히 먹으며 생태적 삶에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5) 반모임을 통해 구체적 실천을 나누기: 생활공동체의 뿌리인 반모임을 통해 우리농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역반과 협의하여 반모임 부교재로 우리농 길잡이를 활용한다. 그리하여 복음화 7단계중 6단계 실천과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일용할 양식을 매개로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살아 숨쉬는 복음화된 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6) 활동조직 튼튼히 다지기: 끊임없이 적합하고 정확한 과제를 설정하여 작고 쉬운일부터 추진해 나간다. 그러나 일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보고 싶은 관계를 만드는게 우선되어야 즐겁고 기쁘게 일할 수 있다.

45) 이하에 소개하는 고산 성당의 사례는 2004년 12월 15일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가 주최한 환경문화원 강좌에서 정홍규 신부가 발표한 “새하늘 새땅, 교회의 녹화”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일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46)</sup> 그무렵 담허물기 기획은 대구시의 도시 정책과 부합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체는 담장을 허문 자리에 귀퉁나무와 오죽을 심었고, 성당입구와 아래에서 소개할 “소박한 가게” 옆에는 큰 느티나무를 심었다. 정홍규 신부는 담장을 허문 뒤로 성당이, 도시 속에서 그린벨트가 그런 것처럼, 지역사람들이 생기를 얻는 숨구멍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이 담장 허물기는 과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더 이상 신자들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향하여 마주보고 미사를 드리도록 혁신하고, 제대와 신자들 사이에 설치한 울타리를 제거한 정신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의회는 이를 통하여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결단과 세상에 열린 영성을 표현하였던 것인데, 정신부는 성당 담철기를 통하여 공의회와 이같은 개방과 순환 정신을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구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신부 자신이 이 시도의 영성적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것은 “‘성과 속의 분리’를 극복하고 그리고 종교와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즉 ‘일상의 성화’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헐기였다. 이 헐기는 종교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닫힌 구조에서 아래로부터 열린 구조라고 보면 좋겠다.”

### 살리는 물 생산 프로젝트

정홍규 신부는 “자연에는 폐기물이 없다”고 말한다. “똥”에 관한 그의 이해는 배설물에 대한 우리의 영성적 인식의 깊이를 질문하게 만든다. 그는 이렇게 진술한다. “우리의 어릴 때 똥은 자원 그 자체이다. ... 인분이야말로 밥상의 상처이고 밥이고 논이고 피이고 살이고 박하향이고 사과였다. 인분이야말로 가장 좋은 퇴비 아닌가? 문제는 인식의 문제이다. 똥이 더럽다는 생각의 문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신부는 자연이 우리에게 똥에 대해서 과거 선조들이 보았던 건강한 인식을 회복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정홍규 신부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인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목한다: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모두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뒤로 나가지 않느냐? 참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다”(마르 7, 17-22 참조). 이를테면, 사람의 몸의 현상으로서, 살리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원래 자연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람을 살리고 우주를 살리는 것으로 쓰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불의를 모의하고 악을 품으며,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사회와 민족과 땅과 하늘을 신음하게 하는 파괴 행위는 사람과 우주와 하느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똥에 대한 경제적 접근 역시 주목된다. 예컨대 “물과 전기가 실종되면 도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세식 화장실이다. 수세식 화장실은 물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구조이다. 똥이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똥을 강물 속에 내 보냄으로써 오염이 되고, 똥의 발효과정에서 생기는 메탄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그 똥을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은 수십억씩 세금을 까먹는다.”

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생활로 구현하고 위에서와 같은 경제적 소모 형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산 성당에서는 대안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BMW 화장실이 곧 그것인데, B는 박테리아(Bacteria), M은 미네랄(Mineral), W는 물(Water)의 영어 첫 글자이다. 이를테면

46) 지금은 상당수의 신자들이 설령 성체 모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행들이 다시 담을 쌓아 올리게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MW는 자연의 정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실현하여 얻게 되는 “생물활성수”를 가리킨다.<sup>47)</sup> 이 생물활성수는 균을 활용하면서 자연의 정화 과정을 그대로 통합시킨다.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화강암, 경석, 인분 그리고 사슴이 먹는 고농도의 흙, 거품장치 등이다. 고산성당에서는 하루에 100리터의 활성수가 생산되어 나온다.<sup>48)</sup>

이 생물활성수 공법은 정홍규 신부가 일본 민간 농민운동가로부터 배워서 한국에 도입하여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에 스물아홉 곳에 설치되었다. 뒤에서 살펴볼 오산 자연학교에도 인분으로 생물활성수를 만들어 내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sup>49)</sup> 어른의 경우 이 물을 직접 먹을 수도 있을 만큼 정화가 완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언제나 소박한 가게

고산 본당은 2004년 5월 스승의 날에 “언제나 소박한 가게”를 열었다. 이 가게는 본당의 소공동체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맡고, 살림살이에 달관한 여신자들이 이 가게를 돌본다.

47) 생물활성수 생산공정: BMW기술의 핵심은 부식전구물질(腐植前驅物質)을 이용하여 박테리아를 폐놀계로 유도하는데 있다. 폐놀계로 유도된 박테리아는 폐놀계 대사산물을 분비하는데 이때의 대사산물은 유기폐수 속에서 거대분자화(巨大分子化)하여 폐수를 세 층으로 분리시키고 이에 의해 폐수는 부식토와 유사한 성분으로 바뀌어간다. 그리고 여기서 미생물 촉매작용을 하는 것으로 바이오리액터를 이용하는데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경석과 부식펠렛, 그리고 산기장치(散氣裝置)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폭기조와 3개의 자연암석조, 즉 7개의 조로 구성된 BMW플랜트는 첫제조의 바이오리액터를 통과함으로써 박테리아가 폐놀계로 유도되고, 유도된 박테리아는 폭기조와 자연암석조를 반복적으로 거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호기성(好氣性)박테리아 뿐만 아니라 혐기성(嫌氣性)박테리아까지도 훌륭하게 배양된다. 처리 앞 단계에서는 경석을 다량으로 투입시킴으로서 박테리아의 번식을 도모하고 마지막 조로 갈수록 화강암의 배율을 증가시킨다. 이는 막대한 양으로 붙어난 박테리아가 마지막 단계로 갈수록 먹이=폐수가 고갈됨으로 인해 아사(餓死)하게 되고 그 때에 분비되는 약산성 대사산물과 미네랄을 추출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처리수는 미네랄(일반하천의 100배 이상)과 미생물 대사산물이 풍부한 물로 재탄생되는데 이 물을 생물활성수(生物活性水)라고 부른다. <http://ecopeace.or.kr>에서. 산처럼, 352-3 참조.

48) 가톨릭신문은 2004년 8월 29일에 이에 관한 소식을 실었다: [http://catholictimes.org/news/news\\_view.cath?seq=24122](http://catholictimes.org/news/news_view.cath?seq=24122)를 보라.

49) <http://ecopeace.or.kr>에 소개된 22개 플랜트의 시설지와 년대 등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순서	장소	플랜트이름	가동시기	비고
1	경주	BM 농장	97.07	국내최초, 경작축산 모든영역 이용
2	충남 홍성	폴무원학교	98.06	교내 실습 및 주위 농가와 공동 사용
3	충남 홍성군 홍동면		99.10	정농회 관계 플랜트
4	경기 양평군 옥천면		00.04	양평군 운영
5	경북 영천	채신농장	00.05	양돈
6	제주	푸른생명 공동체	00.06	경작 축산 모든 영역 이용
7	경남고성	올리베파노 수도원	00.07	수도원서 무료 공급
8	북제주군 현림면	이시들 목장	00.08	약취제거 및 젖소 육우
9	전북 무주군 안성면		01.06	무주군 보조사업
10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01.07	양평군 보조사업
11	춘천시 우두동		02.01	춘천시, 춘천농협 보조사업
12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03.06	양평군 보조사업
13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03.10	화천군 보조사업
14	경주농업환경농업 교육원		03.06	농업중앙회 경북지점 보조사업
15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03.09	양평군 보조사업
16	충남 아산시 음봉면		03	아산시 보조사업
17	전북 남원시 실상사		03.07	화장실 인노처리
18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03.10	양평군 보조사업
19	경남 마산 생그린푸드		03.10	식품폐수 처리 플랜트
20	영천 오산자연학교		03.11	국내최초 인분 처리
21	제주도 수누름		04.03	경작 등에 이용

이 가게 자체가 마을의 담소 자리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작지만, 아름답게, 전혀 고물상 같게가 아니라, 전원 속의 휴식처처럼 마련해 놓았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집에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을 기증하고, 그 기증한 물건들을 싸게 팔고, 그리하여 그 이익금을 이 지역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순환적 생명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신부는 소박한 가게의 시민사회적 토대가 아파트 단지 속에 아름다운 동네를 만드는 지역공동체 형성 운동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다른 한편, 이 가게의 영성적 토대와 관련하여 정신부는 이렇게 진술한다: “소박한 가게의 영성은 예수께서 행하신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나온다(마르 6, 30-44).” 그는 이 기적이 빵의 양적인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이 가게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나누고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빵조각과 물고기를 리사이클 즉 버리지 않고 모으”는 나눔과 감사의 정신 위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다시 모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고산 본당 공동체는 지구에서 8억 명이 굶주리고 북한에만도 350만 명이 굶주리는 현실에 직면하여 그들을 찾아가 돌보고 있다. 아껴 쓰고 다시 쓰며 절약한 것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빵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의 진정한 실체이고, 이 운동의 영성적 토대인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산 본당 공동체는 이 가게에 “언제나 소박한”이란 정체성을 부여하였는데, 정신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소박이란 삶의 양식은 소비사회에 대한 해독제이며 자발적 소박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항체 때문이다. 풍요 속에 마음의 빈곤은 존재 진실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다. 더 쓰고 더 가지고 더 누리면 누릴수록 행복하지 않음을 우리는 느낀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마태 5, 3)는 이 말씀은 비움이 없이 나눔이 없고, 나눔이 없이는 섬김이 없다는 말이다. 자발적 가난과 소박이야말로 무차별 약탈 아래 오염 파괴라는 전 지구의 전면적 생명 파괴와 과잉 욕망으로 인한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는 살림이 된다는 말이다.”

### 고산 생명의 공동체

위의 가게는 재활용(reuse, recycling)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고산 본당이 2004년 단오절에 푸른평화와 연대하여 개장한 “고산 생명의 공동체”는 유기농 직거래 “장터”를 지향한다. “푸름과 다름”이라는 이름<sup>50)</sup>이 어울릴 듯싶은 이 마켓은 성당 건너편 매호천 옆 건물 1층 61평을 매입하여 열었다. 그리하여 단순히 먹거리만이 아니라 생명의 정보도 함께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작고 아름다운 “나눔자리”를 창출해 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생활협동조합방식으로 출자자들을 통하여 모았고, 생산자도 출자하였다.

이곳은 기존의 마켓과는 달리, 유기농 식품과 반찬가게는 물론, 카페 강의나 찻집, 대안생리대센터, 생태교실(매주 수요일), 그리고 환경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현재 대구시 수성구청과 연대하여 마켓 앞에 있는 매호천을 배경으로 미니 생태공원도 만들고 있다. 정신부가 진술하듯이, 이 마켓은 동네 광장으로 기획되고 또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

마켓을 만든 영성적인 이유를 미사와 영성체의 생활화에서 찾는 정홍규 신부는 교회가 그동안 미사와 성체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신자들이 일상에서 성체를 발견하고 영성체의

50) 늘 “푸름”을 지향하고 또 이것을 매개할 장터이자, 하느님의 창조 안에서 모두가 고유하게 “다름”을 간직한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배척이나 질투의 원인으로가 아니라 경축과 풍요의 원천으로 작용시킬 사람들의 나눔터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의미를 구현하도록 도와주지 못해 왔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러나 특히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예수께서 바라시는 영성체의 의미를 하루하루 먹는 밥의 우주적 의미와 통합하고, 이것을 다시, 생산하고 나누는 삶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신자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식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이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자체가 밥을 중심축으로 하여 하느님의 다스림을 향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마르 14, 22-25; 마태 26, 26-29; 루카 22, 14-20). 그리스도교 전례와 신앙생활의 정점이라 할 미사는 바로 이 식사 사건의 기억이자 실행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와 예수의 일치를 사건화 한다. 더군다나 이 일치는 추상적인 일치가 아니라, 위에서도 시사한 것처럼, 밥을 먹으며 이루는 실질적인 일치이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밥은 지극히 영성적이다. 햇빛과 바람, 땅의 기운과 물, 농부의 땀과 손길, 장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부엌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의 정성, 그리고 함께 모여 나누는 사람들의 감사가 하느님의 자비와 은혜에 닿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식사를 통하여 구현된다. 이때 밥알 한 알 한 알이 식사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미 우주의 광대함에 깃든 하느님의 손길과 성령의 섭리를 되살리고 증거하는 전령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정신부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먹는 밥을 하느님과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우주적인 사건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이다. 그는 말한다: “밥을 먹는 것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주의 기운도 먹는 것이다. 먹는 것은 전례이며 의례이며 찬미와 감사이다. 밥을 먹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다. 창조주 하느님께 가는 길이며 사랑이며 제사이며 믿음이다. 고산 생명 공동체의 자리매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밥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데, 이 같은 인식의 전환은 천지만물의 은혜가 깃든 밥을 천천히 모시고 공경하고 나누어 먹는 일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고산 생명의 공동체에 출자한 조합원들은 바로 이런 일치를 뒷받침할 경제 구조로서 작은 인격적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고산 생명의 공동체가 오늘날 빛나간 웰빙 바람과 다른 차원을 갖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주체적 영성 의식에서 비롯된다. 이 운동의 뿌리는 단순히 소비자로 인식되는 사회나 가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 주체들의 뿌리로서 하느님에게까지 닿아 있다. 바로 이런 뿌리 의식과 뿌리에 닿은 실천 과정이야말로 유기농 식품을 소비하면서 조합원이든 소비자이든 “생명가치”에 따라서가 아니라,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소비주의적 웰빙 행태를 철저히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는 전체 공동선이나 공동체를 키우는 “연대적 유통”을 지향하면서, 이를 통하여 새로운 “하느님 찬양”을 단순히 입으로가 아니라 생활로 실천할 것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교회가 우리농 운동을 하고 생협운동을 하며 고산 본당이 생명 공동체를 실현해 가는 것은 호혜경제의 실천을 복음화에 통합하고자 하는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약탈적이고 착취적인 경제는 오래 가지 못한다. 정신부는 현재의 상호 경쟁주의에 근거한 소비주의 경제 틀에 대한 대안을 계에서 보는 가운데 “호혜”의 정신을 주목한다. 그에 의하면, 호혜 경제 구조는 일종의 인격 교환과 생태적 공경 위에 기초한 작은 경제 틀거리로서, 여기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과 생산량을 함께 결정하는 가운데, 품위 있는 생활과 생명의 즐거움을 공유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생태 위기를 치유하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산 본당의 생태 복음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소개한 모

든 것들은 철저하게 “담장 허물기,” 곧 지역 사회 속의 신앙 공동체 구현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생태 복음화 원리 가운데 특히 “지역과 시민 사회와 함께 실천하는 생태 영성”(4.1.5) 차원을 역동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3.2. 산간 모델: 수원교구 평창 성필립보 생태 마을

앞에서 도시 본당 단위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생태 복음화 모델을 소개하였다. 이번에는 생태 복음화의 산간형으로서, 수원교구가 평창에서 운영하는 “성필립보 생태 마을”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모델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세계 차원에서나 국내에서나 가톨릭교회에서 일찍부터 형성되어 온 수도 공동체의 피정 프로그램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일정하게 신자 각자의 내면적 “수양”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상생활과 사회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생태 복음화의 관점에서 연결지어 주는 데 한계를 드러내 온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생태 복음화의 비전을 자각하는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로 평창의 성필립보 생태 마을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필립보 생태 마을이 형성된 데는 수원교구의 창조 질서 보존 운동이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수원교구는 1995년 11월에 “환경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고, 1997년 12월에는 이 위원회의 활동을 계승, 발전시킬 목적으로 “환경센터”를 세웠다. 수원교구는 현재 이 환경센터를 중심으로 생태 복음화를 역동화하고 있는데, 성필립보 생태 마을은 환경센터의 본부 역할과 청소년 생태 교육을 위한 교육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2000년 11월에 완공되었다.

“환경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황창연 신부는 이 생태 마을을 설립하게 된 배경을 신자들에게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영성적 필요성과 연결지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신자들의

봉헌금으로 성당도 짓고 교구도 운영하고 있지만 실상 교회에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교우들이 힘들어 할 때 어떤 영적 서비스 공간이나 쉼의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교우들을 섬기는 정신이 교회 내에 부족한 때문이다. 더 깊은 이야기로 하자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성서 곳곳에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언급을 하셨던가!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신앙, 십자가의 모범만을 강조하는 신앙 안에서 현대의 가톨릭교회는 서서히 삶에 고통에 지친 이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해마다 선교율도, 미사 참여율도 최저치를 새롭게 갱신해 가고 있다. 이제 가톨릭교회도 교우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섬김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 할 수 있겠으나 그 중 한 가지가 숲 막히는 도심 속에서 메말라 가는 영혼들에게 생태적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성 필립보 생태마을은 그러한 의미에서 탄생한 마을이다.<sup>51)</sup>

단적으로 성 필립보 생태마을은 “자연 안에서의 쉼”과 “하느님 안에서의 쉼”을 통합한 영성, 하느님과의 화해와 자연과의 화해를 하나로 깨닫고 체험하고 나누는 영성에 기초해 있다. 이 마을은 바로 이런 쉼과 화해의 통합적 전망에 공감하는 전국의 후원회원들의 지원으

51) 이것은 황창연 신부의 메일 응답 중에서 인용한 것이다. 아래의 내용 역시 이 응답에 기초하여 진술된 것임을 밝힌다.

로 운영되는데, 현재 그 회원이 1만 5천 명에 이른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기층을 형성하는 신자들이 그만큼 자연과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의 휴식을 절실하게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생태 복음화의 원리 가운데 특히 “신도들의 감각”을 존중하는 정신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황창연 신부는 생태 마을을 신앙 공동체에게 개방하는 사례를 아래에 소개하는 것과 같이 다양하게 제시하는데, 이것들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생태 마을의 영성적 기초가 “쉼”에 있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하였는데, 하나는 바로 이 영성을 구현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다른 하나는 생태 교육의 장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생태 마을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청소년 생태 교육관 역할과 보다 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끝으로, 생태마을은 하느님이 바라시는 “푸름”의 영성, 힐데가르트의 언어로 하자면 “생기”의 영성의 구현을 지향하는 생태 농업과 그 나눔을 실현하는 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 3.2.1. 쉼의 영성의 구현

#### 가족 단위 휴식 공간

주 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실행되면서 가족 단위로 기도하면서 쉬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주말이 되면 영동 고속도로가 거의 예외 없이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이다. 실제로 생태마을에서도 특히 토요일 저녁 기도모임과 주일 아침 미사에 참여하는 외지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생태마을에서는 이들에게 주말 여가를 하느님 안에서 가족과 함께 쉬면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기도하면서 쉬고 싶은 교우들을 위한 휴식 공간

신자들 가운데 갑자기 휴직하거나 요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기존의 생활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전기를 준비해야 할 때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특히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신자들 중에서 집을 떠나 공기 맑고 물 맑은 곳에서 기도하며 쉬면서 하느님의 창조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성필립보 생태 마을은 그러한 신자들을 위해서 개인 피정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스스로 성서 안에서, 자연 안에서, 그리고 원할 경우 땅을 일구면서, 기도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투병 중인 교우들을 위한 회복 공간

평생 신앙 안에서 생활하다가 암이나 중한 병 등으로 시련에 직면했을 경우 대부분의 교우들은 미사가 있는 휴양 공간을 원한다. 현재 교회 내에는 평범한 교우들에게 이러한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생태 마을에서는 이러한 교우들을 위해서 황토집 등을 마련해 놓고 마지막 삶을 신앙 안에서 정리할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시간과 공간이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영성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치유받는 은총을 체험할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황간 쉼터 기획

이와 연계하여 주목되는 것이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에 13만평을 마련하여 필요한 사람들

에게 무상으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프로젝트이다. 갑자기 명예퇴직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한 교우들이 있고, 정식으로 일자리를 물러나는 많은 교우들이 있다. 또한 삶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감당하기에 쉽지 않을 만큼 커다란 상실감에 사로 잡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신자들에게 첫째, 무상으로 쉴 수 있고 둘째,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셋째, 원할 경우 영적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넓고 크고 깊은 하나님의 자비를 닮은 영성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 3.2.2. 생태 교육의 장

생태마을은 각성당의 주일학교 여름, 겨울 캠프, 구역장 반장 교육, 레지오 단원 피정, 노인 대학 캠프, 성당 내 여러 소공동체 모임은 물론, 일반 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 장소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생태 마을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생태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푸르름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태 친화적 생활 방식의 고귀함을 자각하며, 아름다운 자연과 의로운 신앙인의 조화야말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노래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은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3.2.3. “푸름”의 영성 실천

#### 생태 마을로서의 기능

생태 마을은 현재 5천 평의 경작지를 갖추고 있다. 도심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연의 신비와 가치를 체험하지 못하거나 잇은 채 자연에 폭력적인 사회에 길들여져 있기 쉽다. 이들이 현시대에 자연의 신비감을 맛보고 자연의 향기에 취할 수 있도록 농사와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서 거름 만들기,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 만들기, 가축 기르기, 야채 키우기, 채식으로 식단 꾸미기, 두부 만들기, 한지 만들기, 별자리 체험, 풍력 발전기 체험하기, 황토방 체험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이런 생태 체험 프로그램들은 현대인들에게 비움의 기쁨, 가난의 영성의 심오함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심으로 돌아가서도 자연을 고향으로 기억하고 자연이 베푸는 풍요로움을 닮아갈 수 있는 역량을 높여주게 된다.

#### 우리 농촌 살리기

생태마을은 단순히 도시인들을 위한 공간인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땅과 먹거리에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방식으로 농업에 종사할 경우 땅과 그 주변의 생태계는 물론 경작자 자신들이 신음하게 된다. 이곳은 이런 상호 파괴와 죽음의 구조를 극복하고 농민과 농토와 생태계를 함께 되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하여 퇴비 등을 이용한 자연농법을 통하여 먹거리를 생산함으로써 농민은 도시민의 건강을, 도시민은 농민의 생활 안정과 품위있는 생산을, 그리고 이같은 연대를 통하여 농토와 자연의 건강과 푸름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는 많은 교우와 후원회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무농약 김장과 무농약 무방부제 메주,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각종 농산물과 채소 등이 그런 생산물들 가운데 일부이다.

황창연 신부는 사목의 본질 중 하나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신자들이 신앙의 지평 안에서 길을 찾아 가고 행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각 본당에서 그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교우들을 돌보는 교회로 거듭 나아 할” 과제 앞에서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이 문제에 전적으로 투신하는 주체들이 필요할 수 있다. 황창연 신부는 생태 복음화의 관점에서 교회의 이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 자신의 사목 비전을 발견하였던 것인데, 그의 이같은 인식에는 현대 가톨릭 교회가 일정하게 드러내는 외적 성장에 경도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작용하고 있다.

황신부는 교구나 본당이 외적 성장을 위해서는 총력을 기울일 줄 알면서도, 신자들의 영성적 갈망을 돌보는 데 소홀한 면을 노정시키고 있는 현실을 주목한다. 이럴 경우, 유럽 교회가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미구에 성당마다 텅 비어, “외적 성당”만, 곧 “눈에 보이는 건물”만 남게 되고 말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외적 성장을 추구하는 단계를 극복하고 신자들이 영성적으로 행복한 공간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교회 지도부가 보다 더 철저하게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구는 물론 수도회의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굳이 생태 마을 형태는 아니더라도, 수도회들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생태 복음화의 관점에서 수도회 자신들의 공간을 개방하고 각 교구들도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영성 공간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리라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황신부는 교구와 교구간의 연대 사목을 통합적으로 전개할 과제까지도 내다보고 있는데,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성 공간을 범교구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한국천주교회가 적어도 균립하는 교회 내지 지배하는 교회상을 극복하고 봉사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고통에 동참하는 교회의 면모를 보다 더 역동적으로 갖추어 갈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통합” 사목에 대한 관심이 차츰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통합”의 지평을 교구별, 혹은 교구 내의 지구나 본당 차원에서 좁혀 보는 것을 극복하게 하는 데도 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3. 생태 사회복지 모델: 원주교구 배론 살레시오의 집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1991년 3월 낙동강에 폐놀이 방류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동훈 신부가 지적하듯이, 좀더 멀게는 1960년대공단 주변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운동이 환경운동의 시초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sup>52)</sup>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환경운동은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인데, 이것은 환경운동과 사회정의 문제가 상호교직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동훈 신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가톨릭 환경운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정의적 접근을 지속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sup>53)</sup> “환경오염의 우선적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 가톨릭 환경운동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54)</sup>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될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를 얻고, 자신의 힘으

52) 이동훈, “가톨릭 환경운동의 방향과 과제,” 54.

53) 같은 곳.

54) 같은 글, 53.

로 그것을 극복할 능력도 없는 사회적 약자로서 장애인들은 더욱 더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환경오염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린이와 여성들과 가난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도 특히 노약자, 장애인들인 것이다. 더욱이 현대에 발생하는 신생아 기형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sup>55)</sup> 환경오염이 장애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들은 환경 문제의 중심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환경 상태에 쉽게 노출되는 계층도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위험한 환경 시설이 들어서는 곳도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와 가까운 곳인 경우가 많다. 이동훈 신부가 지적하는 것처럼, 석면 먼지가 떠다니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계층이 많고, 위험한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부지는 사회적으로 호소할 데가 별로 없는 시골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멀지 않은 곳으로 선정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이익을 보는 업주들, 전기를 사용하여 보다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입게 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익과 손해의 분배가 고르지 못하니 이는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다. 환경문제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sup>56)</sup>

그러므로 이동훈 신부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환경적)외면하면서 지구 환경만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인간간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sup>57)</sup> 이런 관점에서 이신부는 “기존의 사회복지 사업에 환경피해자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느님과 피조물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sup>58)</sup>

그가 이와 같은 생태 사회복지 인식에 도달하게 된 것은 배론 살레시오의 집 원장으로 중북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사목에 투신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는 그 전환 체험을 이렇게 증언한 적이 있다:

환경신학 공부를 위한 서울 유학생(?)을 마치고 교구로 복귀했다. 그런데 주교님은 내 전공분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배론성지에 있는 정신지체인 사회복지시설 ‘살레시오의 집’으로 발령을 내셨다. 교회의 인사라는 것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인지라, 순명을 약속한 사제로서 어쩔 수 없이(?) 낯선 업무에 적응하며 생활한 지도 9개월이 흘렀다.

55) 이동훈 신부는 울산대학 병원 소아과에서 연구한 논문을 인용하여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영아들에 관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적이 있다: “1992~96년 이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4.9%가 소화기관, 심장 등에 구조적 장애를 지닌 기형아였다. 이는 1985~90년 수치(2.6%)의 갑절에 가까운 것이다. 이같은 추세는 연세대 의대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91~95년 이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임산부 중 5.1%의 태아가 기형으로 진단됐으며,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사산이나 자연유산되는 이상아까지 포함하면 기형아 비율은 전체 태아의 13%로 추정된다. 이렇게 기형아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진단 기술의 발달로 이상아 발견율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환경오염 등의 영향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대표적 환경오염 물질인 수은은 생태계 사슬을 통해 축적되는 잔류성 독성물질로 먹는 물이나 음식물, 공기 등을 통해 인체에 축적되며 정신지체, 뇌성마비,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납 또한 뇌 발달에 영향을 미쳐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와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 환경오염 물질이다”: 이동훈, “하느님의 뜻,” 평화신문 780, 2004년 7월 4일.

56) 이동훈, “사람을 살리는 일,” 평화신문 781, 2004년 7월 11일.

57) 이동훈, “가톨릭 환경운동의 방향과 과제,” 54.

58) 같은 곳.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 정신지체인으로 분류된 우리 가족들은 자신들을 정신지체로 분류한 사회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다. 때론 우리 가족이 정상이고 사회가 오히려 정신지체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하느님께 더 많이 의지하고, 헛군데에 마음을 덜 쓰고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가족이 하느님께 더 가깝기 때문이다.

시설에서 지내면서 새롭게 깨달은 하나는 내 전공분야인 환경과 장애인이 결코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 실제로 장애인복지법 15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 환경오염과 장애발생의 상관관계를 말해준다. 그러나 환경운동과 사회복지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가 아니라 오히려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교회의 일(인사)엔 역시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다.<sup>59)</sup>

이동훈 신부는 이런 생태 사회복지 인식에 근거하여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두 방향에서 모색해 간다. 하나는 단순히 복지사들이나 봉사자들에 의해 관리되거나 돌보아지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태 농장이나 목공소 등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 스스로 노동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은 물론, 농장을 일반 사회인들에게 개방하여 이들이 주말 농장 활동을 하는 동안 장애인들이 이들과 함께 어울릴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생태 사회복지에서 놀이는, 특별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의 신체적, 영성적, 지적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에 눈뜨게 된 것은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습이나 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현장 체험을 통해서였다.

살레시오의 집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에 안한준 봉사자의 지도로 살레시오의 집 장애인 가족들이 풍물 놀이를 배운다. 이들은 북과 팽과리, 장고, 징, 소고 등 전통 타악기들을 두들기며 흥에 겨워 논다. 살레시오의 집에서 풍물을 시작한 것은 1998년 3월이었다. 다음해에 맞을 10주년 행사 때 후원회원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기획한 것이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장애인 가족들이 “시끄럽다”고 하면서 소극적이거나 외면하기조차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이 달라져갔다고 한다. “서로 꼬집고 싸우며 말다툼하던 모습들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북, 팽과리, 징, 장고를 신나게 치며 스트레스가 절로 해소됐기 때문”이었다.<sup>60)</sup> 안한준 지도자는 장애인 연주자들이 풍물놀이를 할 때 온몸으로 가락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공연을 지켜본 관중들도 덩달아 신명나 한다면, 풍물놀이가 장애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장애 단체들에게도 권하였다. 현재는 연습에 참여하는 장애인 50여 명 가운데 15명 정도를 선발하여 풍물놀이패를 조직해서 체천시와 교회 큰 행사에 초대받아 풍물놀이를 공연하여, 행사의 흥을 돋우는 봉사 단체로 발전하고 있다. 이동훈 신부는 살레시오의 집 풍물놀이의 의의를 이렇게 집약하고 있다: “풍물놀이를 통해 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는 살레시오의 집을 건강하게 하는 “놀이”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이들의 건강을

59) 이동훈, “하느님의 뜻”에서.

60) 이연숙, “원주교구 살레시오의 집 ‘풍물놀이패,’” 평화신문 806, 2005년 1월 16일. 이하 살레시오의 집 풍물놀이에 관한 내용은 이 기사를 기초로 구성된 것임을 밝힌다.

지켜 주는 치유적 효과를 갖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영농이나 목공 등과 같은 다양한 노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살레시오의 집에는 상황 버섯과 허브, 채소, 잡곡 등을 키우는 농장이 있다. 이 농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그룹으로 “소망이네” 가족이 있다. 살레시오의 집 중복 장애인 가족 가운데 노동을 통해서 영적,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킨 구체적 사례 가운데 하나를 이들에게서 볼 수 있다.<sup>61)</sup>

소망이네 가족은 살레시오의 집이 채택한 “그룹홈” 제도에 따라 구성된 가족이다. 수용시설을 벗어나서 직원과 가족이 작은 단위의 독립된 가정을 꾸며 살아가도록 한 것이다. 살레시오의 집은 소가족 형태의 그룹홈 돌봄 제도가 갖는 장점을 살리면서 노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노동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영성적으로도 더욱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동훈 신부의 증언에 의하면, 이 제도를 통해서 특히 소망이네 가족이 눈에 떨 만큼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완전히 독립된 그룹홈이 아니라, 시설을 오가며 식사를 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소망이네 가족들은 몇이서 어울리거나 혼자서 도보로 10여 분 떨어져 있는 시설에서 그룹홈까지 다니면서, 길을 잃지 않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살레시오의 집에는 장애인들이 일반 사회인들과 어울릴 기회를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갖추게 된 계기는 배론 근처 제천의 한 환경단체 회원들이 생태농장을 운영하고 싶어하면서 마련되었다. 살레시오의 집 원장 이동훈 신부는 이들에게 시설의 밭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단순히 밭에서 생산하는 작물들에게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살레시오의 집 장애인 가족들과 자매 결연을 맺는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일할 것을 요청하였다.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잘 움직이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일에 둔감해지기 쉽다. 그 결과 장애인들은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하기보다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이런 생활상은 장애인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정서적으로 날카로운 상태에 있게 만들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이신부는 가족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통합과 심리적 안정을 이루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신부는 일반 시민들이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유기농으로 농사짓는 일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봉사활동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보는데, 그는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땅을 살리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인간(장애, 비장애인)을 살리는 일보다 더 큰 봉사활동은 없다. 환경운동을 배부른 자들의 소일거리쯤으로 폄하하려는 진보적 운동가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sup>62)</sup>

당연한 것이지만, 이 신부의 이 진술은 사회 정의 차원을 소홀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61) 이런 변화의 한 실례를 이동훈 신부는 장석철의 사례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성격이 명랑하고 뉴스나 드라마 인물들은 물론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 모습까지도 그럴듯하게 흉내를 잘 내어 차칭 타칭 '장 신부'라 불리는 장석철(대전 안드레아, 30세)씨의 변화도 놀랍다. 다양한 레퍼토리로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기는 하지만 일하는 데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던 인물이다. 영농 그룹홈에 속해 있어 매일 허브농장에 가지만, 일보다는 혼자 중얼거리며 깔깔대거나, 봉사자들에게 말을 걸며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것으로 소일을 하던 석철씨에게 얼마 전부터 큰 변화가 있었다. 어느날 그렇게 일하기를 싫어하던 그가 띄약별 아래에서 허브하우스 주변과 밭의 풀을 뽑는 것이었다. 얼마하고 말짖거나 생각했는데, 어제는 장맛비를 흠뻑 맞고 하우스로 들어온 그에게 이유를 물으니 그 장맛비에도 풀을 뽑고 왔다는 것이다. 감이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다음부터 비오는 날은 쉬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자기 적성에 꼭 맞는 일을 찾은 석철씨가 대견스럽다.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보살피주는 이들 덕분에 우리 가족들은 비록 더디지만 한뼘 한뼘씩 몸과 마음이 자란 것이다” 이동훈,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 평화신문 782, 2004년 7월 18일.

62) 이동훈, “사람을 살리는 일”에서.

하지 않는다. 사회 정의 활동을 생태 영성에 기초한 활동과 대립시키고 후자를 이른바 부르주와적인 것으로 매도하는 형태를 경계하려는 데 초점이 놓여 있는 것이다. 실제로 생태 복음화 비전에서 사회 정의 차원을 통합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자칫 생태 영성이 주목하는 축복과 가능성 등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의 불의를 몰각하고 역사의 현장을 소홀히하는 이른바 비역사적 낭만주의적 생태주의나 개인주의에 경도된 빛나간 웰빙주의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점을 다음 장에서 생태 복음화의 원리를 검토하면서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 3.4. 생태 교육 모델: 대구대학교 오산 자연학교

앞에서 도시 본당의 생태 복음화 모델로 소개한 고산 본당의 여러 프로그램들은 정홍규 신부가 대표로 있는 “푸른평화”의 비전을 기초로 삼고 있다. 그런데 오산 자연학교 역시 “푸른평화”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생태 복음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다.

오산의 자연학교를 소개하기에 앞서 푸른평화 운동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정신부의 생태 영성 여정을 집약하고 있는 대구의 “푸른평화” 운동은 1990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생명, 경제, 주민 참여, 지역 자치”를 이념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공해 물품 안 쓰기, 폐식용유를 활용한 비누 만들기, 유기농산물 직거래, 우리밀 살리기, 재생운동, 생활협동운동 등을 전개해 왔는데, 1997년 2월에 사단법인 조직을 갖추었다.<sup>63)</sup>

푸른평화는 1990년 활동을 개시한 이후 1995년 여름부터 자연학교를 열기 시작하였고, 이때 이래 계절별로 산과 바다를 찾아 학교를 열어 왔다.<sup>64)</sup> 그러다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오산에 있는 폐교를 인수하여 오늘의 오산 자연학교를 2003년 11월에 열었다. 여기서는 성인들이 자연에서 소외되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도시 문명 속의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 안겨서 쉬고 놀고 치유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이번에는 다시 자연이 인간 안에서 쉬고 놀고 치유받을 상호 역동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연 체험과 자연 명상을 통하여 자연에 대한 사랑과 전인적 관계를 일깨우고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다시 자각할 수 있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자연학교의 정홍규 신부는 이 학교가 특수학교나 대안학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이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아 하느님의 생명의 질서를 노래해 온 130억 년의 우주 이야기를 기본 교재로 삼고, 하느님의 성령이 수위이자 교장인 우주를 교실로 삼는다.<sup>65)</sup> 그런 속에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외딴 곳으로 가서 잠겨들었던 기도를 모델로 삼아서 고요 훈련과 자연 명상을 시도한다. 그런 가운데 “사계절 24절기에 다른 풍습과 전통놀이를 체험하며 조상의

63) 푸른평화와 오산자연학교 홈페이지, <http://ecopeace.or.kr> 참조. 이하의 내용은 이곳에 실린 자료들을 토대로 구성된 것임을 밝힌다.

64) 김상재 푸른평화 사무국장의 증언.

65) 우주적 차원과 연계된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자연학교가 우주와 하나되는 체험을 쌓도록 계절별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 가운데는 자연 캠프, 별보기 캠프, 우주론 캠프, 왜가리, 고니 서식지 탐사, 하이킹, 등산 산책, 과일과 열대 채소, 뿌리 채소 수확하기, 자연물 놀이, 자연물로 만들기, 계절별 염색, 야생차 만들기, 각종 열매 채소 분양 받기, 알 분양 받기, 누에 기르기 등이 있다. 특히 우주 걷기와 미로 걷기, 계절 음식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에는 어린이들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과 성인 신자들도 참여하고 있어서, 이것들은 성인들의 자연 연수와 신심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슬기와 자연의 순환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조들이 자연을 어버이요 동지요 친구로서 관계를 맺어 가는 방식을 통하여 형성한 생활 전통과 놀이 정신을 체화할 기회를 갖게 한다.

자연학교는 참가자들이 “식물 키워 보기와 수확을 통해 자연에 감사함”을 체험하도록 이끌고, 우리 땅에서 나온 먹거리로 음식을 만들어 나누며, 음식 찌꺼기로 퇴비를 만들어 흙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재생비누, 재생휴지, 물사랑 치약과 세제”를 사용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우주에 폭력적이지 않은 관계를 실천할 경험적 기초를 쌓게 하고 있다. 또한 도시 본당 모델에서 소개한 바 있는, 화장실의 분노로 생물 활성수가 만들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태 학습장을 견학함으로써, 자연의 생산적인 순환을 새롭게 깨달을 계기를 제공한다. 부엌에서 버려지는 생활 폐수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생태 연못으로 변하는 과정을 견학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이런 견학을 통하여 도시와 자연의 황폐화가 단순히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과정을 통합시키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통해서 극복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자각할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학슈 자연학교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그리고 미국의 뉴저지 환경학교와 교류하고 있다. 자연학교는 생태 영성을 매개로 세계 지구 공동체와 연대와 일치, 평화의 감각을 증진시켜 가고 있기도 한 것이다.

나는 위에서 정홍규 신부가 오산 자연학교가 특수학교나 대안학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특수 교육이고 대안 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교육은 기존의 교육관을 뛰어넘는 영성 비전을 체화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교육이고, 기존의 교육에서 균형을 상실한 영적 감수성을 회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대안적 성격을 갖고 있다.

다만 기존에 알고 있는 “특수”니, “대안”이니 하는 범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실제로 그런 “특수,” 그런 “대안” 교육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가톨릭 신자와 신자 아닌 것을 구분하여 교육 받을 기회를 제약하지 않으므로 신앙 때문에 특수하다는 것도 아니고, 특권층을 겨냥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제 면에서 특수하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은 여전히 특별하고 특수한 교육의 성격을 갖는다. 이 교육은 일상의 교육 구도를 벗어나서 찾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특수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 매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위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참가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생태적 전망을 훌륭하게 육화시켜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것이 일반 사회에서 시도되는 공교육의 틀에서는 그야말로 특수한 교육 사례로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것은 곧 자연학교의 체험 교육 효과가 단절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 교육에서도 생태영성 전망을 지속시키고 확산시킬 길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시민들이 생태적 전망을 공교육에 통합한 형태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길을 여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과 같이 인격 교육이 실종된 현실은 교회가 민족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해 주는,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야말로 그래서도 가야 할, 시대적 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산 자연학교의 이 특수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연학교의 생태 비전을 공교육

과 통합하여 건강한 시민 사회를 형성할 교육적 존재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수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 과제를 자각해야 한다. 공교육 체계 안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겪는 고통과 그들에게서 발해지는 신음의 깊이에 민감하다면, 이들을 돌볼 틀을 형성해 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복음화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뒤의 영성 프로그램 가운데 청소년 교육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돈보스코와 마자렐로 성인의 영성을 체험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는 것과 그 과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알고도 하지 못할 때, 역량 부족에 대한 고백을 불러일으키고, 연대의 일념으로 기도하는 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제를 인식조차 하지 못할 때, 그런 주체들은 도리어 참여하는 부류를 특권화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부류는 낮추보는 오만을 드러낼 위험이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생태 복음화를 역동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일과 하느님의 집안의 범위를 너무 쉽게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영성적 깊이가 필요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현대 세계에서 갖는 역사적 영성적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더 이상 교회와 세계를, 신앙과 현실 질서를, 그리스도인과 다른 종교 전통에 들어서 있거나 심지어 일체의 신앙을 거부하는 이들까지도 차별하거나 대립시키지 않을 수 있는 지평을 열고 실천하고자 한 데에야말로 공의회가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 교육의 지평을 구체화해 가는 과정에서도 공의회 정신을 따라서 너무 쉽게 자기의 영역과 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쉽게 판단하면, 쉽게 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교 역사 전통에서 증거하는 대로이다.

#### 4. 생태 복음화를 위한 영성 교육 프로그램

앞에서 본 것처럼, 현재 가톨릭 환경 운동은 “올바른 먹거리”나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연에 폭력적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형태로 추진되는 개발 사업의 부당성을 쟁점화하며, 시민 단체와 공조하여 이런 개발에 항거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66)</sup> 우리나라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교회 안팎에서 전개되는 환경운동은 “과거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면서, “정치 지향적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적 투쟁 일변도의 모습을 보이” 것이 현실인 것이다.<sup>67)</sup> 문규현 신부가 앞장섰던 새만금 개발 사건이나 부안 폐기장 건설 사건, 천성산 터널 사건에서 보듯이, 이런 운동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였던 활동가들의 참여로 환경운동이 활성화되고 환경의 정치·사회·경제적 차원을 보다 더 분명하게 자각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기여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가톨릭 환경운동이 “파괴된 환경의 실상을 알리고 이것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집단적이고 조직적 실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한계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sup>68)</sup> 이때 환경 문제나 생태 문제를 우주 차원의 하느님의 집안 인식에 근거한 “하느님의 생명 공동체의 연대와 구원”의 전망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약해진다. 실제로 이같은 환경운동이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투쟁식의 대립 구도 위에서 전개되는 과정에서 생태 운동의 종교적 차원과 창조-축복 영성의 화해 지향적이고 수행-지향적인 차원을

66) 이동훈, “가톨릭 환경운동의 방향과 과제,” 48 참조.

67) 같은 곳.

68) 같은 글, 49.

간과할 위험을 발생시켜 오기도 했던 것이다.<sup>69)</sup> 이런 상황에서 교회 내부에서는 환경과 생태 운동을 위한 신학적 성찰이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여전히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윤리신학적 차원에 머무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sup>70)</sup> 이럴 때 필연적으로 교회 내부에서 전개하는 환경운동이나 생태영성운동은 그리스도교적이며 가톨릭적인 독특성을 갖추지 못한 채, 사회 환경단체들의 활동과 대동소이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전문성과 지속성에서 그들에게 뒤지면서 오히려 시민사회의 환경운동에 종속적이게 되기 쉽다.<sup>71)</sup>

이같은 현실 속에서 오늘의 환경-생태 운동의 가톨릭적 비전을 형성해 가는 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교 영성 전통 안에서 생태 영성의 역동성을 확인하고 이를 아시아의 삶의 자리에서 축적되어 온 하느님 체험과 통합하며, 이를 다시 우리의 역사와 문화 맥락에 바르게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모델들을 살아갈 영성적 에너지가 되어줄 것인데, 이 영성적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쇄신시키며 역동화하는 데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생태 복음화 7단계 강좌”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에게 스스로 생태 영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언어”를 갖추게 하고, 생태 복음화를 실천하고 스스로 발전시킬 충분한 영성 기운을 갖추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먼저 생태 복음화를 위한 원리를 제시하고, 여기에 이어서 7단계 생태 복음화 강좌를 단계별로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 4.1. 생태 복음화의 원리

##### 4.1.1. 민족과 역사를 존중하는 생태 영성

생태 복음화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의 뿌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예컨대 생태 영성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주의에 환원당하는 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 우주를 말하면서 역사의 현장을 놓치고, 심지어 미국의 패권-제일주의에 생태-축복의 영성이 도구로 작용할 위험을 드러내기조차 한다. 세계 최대의 부국으로 일컬어지는 미국이 하느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하는 퇴폐적 물질주의적 축복-생태 이해가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도 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 복음화를 인간 중심, 사회 중심, 세계 중심, 지구 중심, 우주 중심에 갇히게 만드는 폐쇄주의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모든 차원을 오히려 “하느님의 집안”이라는 영성적 축을 통하여 통합할 토대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느님의 집안 안에서의 연대에서 민족의 역사와 운명이 차지하는 위치와

69) 같은 글, 49-50.

70) 같은 글, 48.

71) 천주교환경연대 창립 선언문(2002년 6월) 참조: “한국 천주교회의 10년간의 환경운동은, 그 내용에 있어 사회 환경단체의 운동과 차별성을 갖지 못함으로써, 환경운동이 일선 사목자들과 신자들에게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회 운동의 부문운동 정도로 여겨져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환경 위기 자체가 요구하는 급박함으로 인해 성급하게 사회운동 차원에만 매몰됨으로써, 환경운동을 신앙인의 본분으로 인식하는 창조영성, 생태영성을 진작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홍규는 가톨릭 환경-생태운동이 신학과 영성을 결여하고 있는 현실을 1991년 무렵 교회가 매우 활발하게 환경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이나 1990년 세계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서울에서 정의평화창조보전 대회를 개최하였을 때 가톨릭 교회가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원인으로 인식한다: 산처럼, 362.

역할을 간과한다거나 억압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서 민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각 개인, 사회, 세계, 지구, 우주 사이의 연대를 구현하는 한 중심들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조차 하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도리어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우리의 생태 복음화와 통합시킬 수 있는 영성적 전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생태 복음화의 뿌리와 원동력이 하느님이시라는 것과 민족의 역사가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뿌리 하느님과 우리의 만남과 동행을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영성적으로는 물론 사목적으로도 투철하게 자각하고 이러한 자각을 자기의 신앙 실존 안에 구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태 복음화는 깊은 차원의 토착화를 역동적으로 뒷받침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토착화 위에서 보다 더 탄력있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이 1970년대와 80년대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을 중심으로 민중의 존엄과 민족 사회의 질로서 민주화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투신 과정에 통합시킨 전통이다. 우리 교회는 21세기의 생태 복음화 여정에서도 역시 이 전통을 슬기롭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4.1.2. 사회 정의와 통합된 생태 영성

우리는 위에서 인류 공동체, 생명 공동체, 우주 공동체를 하느님의 집안의 관점에서 통합하여 그 뿌리가 하느님 자신이라는 것, 민족의 역사가 이 뿌리를 오늘의 우리에게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를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생태를 자연에 한정하여 바라보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생태 영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이들은 이를 극복해 가고 있지만, 우리 농산물이나 건강식품, 무공해, 저공해 식품, 자연형 대안 교육 등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인간 사회의 구조적 불의가 어떻게 생태 전망과 상관되는가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인간 자신과 인간 사회가 생태라는 것, 고유하게 생태라는 것, 이것을 철저히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한 결정적인 성찰 계기를 김지하가 생명운동으로 전환하게 된 정황에서 볼 수 있다. 김지하는 1980년 12월 12일에 감옥에서 나와서 생명운동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이렇게 생명운동에 눈뜨게 된 것은 민족의 고난의 현장에서 민중과 함께 하는, 곧 고난의 역사 현장에서의 입장(臨場) 과정으로서 감옥살이에서였다. 이 사실이 갖는 생태학적 의미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의에 목숨 건 투쟁의 과정에서 자기 해방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이룬 것이 감옥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성찰하게 한다. 감옥은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빼앗기고 나서 들어가는 곳이다. 민중과의 입장까지도 빼앗기는 것, 이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것이다. 이것은 입장을 왜곡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생태의 입장”에 대해서 눈뜨게 되었던 것이다.

김지하는 <사상기행-신인류를 꿈꾸며>에서 생명과의 새로운 만남을 이렇게 술회하였다.

서대문 감옥은 일제 때 지은 낡은 집이라 쇠창살이 요즈음 교도소하고 틀려요. 봄이면 쇠창살 사이로 하얀 민들레 씨가 막 날아 들어온다고. 어느날 민들레 씨가 들어와 천장에 가득 차서 아침에 빛이 들어오면 빛 속에서 하늘하늘 춤을 춘다고. 그날 따라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거야.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어요. 또 평소에도 보아왔지만 그냥 지나쳤는데, 시멘트 받침하고 쇠창살 사이에 비 때문에 조그만 흙이 파였는데 그 흙에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와서 쌓인다구. 그 흙먼지에 풀씨가 날아와 박혀요. 이 풀씨가 비

가 오면 빗방울을 먹고 나라나. 거기선 개가죽나무라고 하는데 굉장히 크게 자라요. 개가죽나무, 풀인데 나무라고 그래. 같이 있던 건너편의 나병식이는 거기다가 물도 주고 그러더라구. ... 그날 따라 그게 유난히 확대되어 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온종일 울었어요. 두 가지를 보고 이유 없이 운거라. 그때 허공이 진동하면서 한 마디 말이 클로즈업이 되는데 그게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기독교인 같으면 일종의 계시일텐데. 묘하게 왔어요. 눈물 속에서 생각한 게 무소부재(無所不在)라. 생명이라는 것은 ... 감옥을 뚫고도 들어와 자라.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안에 빈대도 살아, 쥐들도 와, 외로울 게 없어. 하물며 고등생물인 내가 이 생명의 이치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무서울 것이 없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것이 무소부재니까 내가 담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밖에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대지는 담으로 막아놔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늘과 공기도 담 너머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sup>72)</sup>

이럴테면 감옥이라는 것이, 민중과의 입장을 파괴한 이들이 쌓아 놓은 담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생명의 입장을 막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김지하에게 새로운 임장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요가”를 하면서 썼다는 “물구나무”라는 시를 통하여 이때의 심경을 이렇게 읊었다:

감옥이라도  
하늘만은 막지 못해  
밤마다 두견새 와서 울고  
시간이 무너진 자리  
귀틀상자에도 봄이 와  
하얀 민들레 씨 가득히 날아든단다  
사람이 그만 못하랴  
이 봄엔 물구나무를 서겠다  
몇 차례고 어디서고  
빼앗긴 봄날엔 웃어 물구나무를 서겠다  
지구를 받쳐들고  
두견새 소리 맞춰 곳거리 장단으로  
창공에서 한바탕 발춤 추어볼란다  
구경오너라  
애린  
웃지는 말고 애린  
오늘밤 나는 화성에서 잔다<sup>73)</sup>

생명을 만난 사람은 자유다. 하늘에 닿았을 때, 감옥의 벽에 갇혀서도 사랑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잔다. 하느님의 밤에 자기를 내어맡긴다. 그리고 웃는다.

보라, 예언자들의 삶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옥에 갇히면 옥을 하느님과의 대면

72) 김지하, 사상기행-신인류를 꿈꾸며, 실천문학사, 1999, 25-7.

73) 김지하, 흰 그들의 길 3, 25-6.



자리로 삼는다. 그들은 그 안에서조차 그들을 가둔 이들과 품어안기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사랑한다. 예언자들이야말로 생태적이다. 인간을 포용한 생태 인식, 자연을 포용하는 정의 인식, 이 둘이 그들의 삶에서는 통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신음하는 민중의 관점에서 본 사회정의와 생태 영성의 통합에 관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의 구현과 생태-생명 운동, 이 관계는 불의의 편에 선 이들의 사회적, 생태적 행위와 관련해서도 냉철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오늘 이 시대에 좋은 환경-우리농산물-웰빙 라인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 가운데는 이를테면 김지하와 그의 동료들을 감옥에 가두는 데 가장 앞장섰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 방관했거나 묵인했거나 동조했거나 거들었거나 했던 장본인들과 그 후손들이 있을 수 있다. 무공해를 찾고 이른바 “구매”할 능력을 갖는 이들은 지금까지 선두에서 공해를 유발시킨 주역들이기 십상이다. 이들을 위해서 환경운동을 하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농산물운동을 한다는 말인가? 당연히, 이 부류의 사람들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농민과 도시 빈민, 하느님의 민중이 그들의 논리와 활동에 의하여 다시 신음하게 방치하는 방식으로 생태 영성이 왜곡당하거나 빈곤해지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sup>74)</sup>

단적으로 말해서, 생태와 정의의 분리는 오히려 생태 정의를 왜곡시킨다. 공해 발생 주역은 자본을 축적하여 생태계를 계속해서 파괴할 자본력을 확보하는 가운데 공해를 피하여 휴가를 취할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비해서 공해 피해를 직접 겪는 민중은 계속해서 공해의 현실을 떠안고 살아 가게 된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생태 영성의 구현은 예컨대 체 게바라를 만난 랑과 아르티아가 다음과 같은 정의-살이를 관철시켜 갈 영성적 용기를 필연적으로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땅콩죽을 끓여 왔어요.” 장교는 의자에 앉아 두 다리를 책상 위에 얹어 놓고 손을 깍지 끼 머리를 받친 채 여선생을 힐끔 쳐다보고는 마치 부하한테처럼 명령투로 “거기 놓고 가시오”라고 했다. 랑과 아르티아는 자신을 부하처럼 취급하는 장교한테 화가 치밀었으나 꼭 참았다. 그의 허락을 받을 게 있어서. “포로한테도 죽을 쥐야죠.” 장교는 여전히 반쯤 누운 채로 랑과 아르티아한테 눈길도 주지 않고 안된다 했다. “왜 안 됩니까? 당신들만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글쎄, 안된다니까!” 장교는 귀찮다는 투로 말을 내뱉고, 랑과 아르티아 쪽으로 몸을 반쯤 돌려 눈을 똑바로 뚫었다. 그의 눈빛은 굵주린 짐승과 흡사했다. 랑과 아르티아도 그를 똑바로 쏘아보고 대들었다. “ 좋습니다. 포로한테 음식을 못 주게 하면 당신한테도 줄 수 없어요. 내가 만든 거니까. 도로 가져가겠어요” 하며 바닥에 있는 죽통을 들어올렸다. 장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그녀한테 다가갔다. “선생님의 인도주의 정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포로한테도 죽을 나누어 주시죠.” 장교는 비웃는 투로 말했다.

“제가 직접 갖다 줘도 되지요?” 장교는 마지못해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다. 랑과 아르티아가 교실로 들어가 보니 게바라는 밧줄에 묶인 채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따라온 장교한테 음식을 먹을 동안 밧줄을 풀어 달라고 부탁했다. 장교가 보조병을 시켜 밧줄을 풀었다. 랑과 아르티아는 죽 그릇을 게바라 앞에 갖다 놓고 식기 전에 드시라고 했다. “고맙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먹었나요?” “그럼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직접

74) 창조 보전 운동의 제약과 정의 문제가 상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한면회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다: “지구환경 보전과 지구촌 빈곤층의 삶의 질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의에 바탕을 둔 영성적 삶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고 또한 사회가 물질적 성장과 소비주의에 여전히 깊게 침윤되어 있는 탓이다”: 한면회, “천주교환경운동의 이념과 실천 방향,” 천주교환경연대 제1차 총회 자료집, 41.

갖다 주고 왔어요. 당신이 케바라지요? 조금 전 라디오 방송에선 당신이 전투하다 죽었다 했어요.” 케바라는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구신데, 왜 저한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니까?” “저는 이 학교 선생인 랑과 아르티입니다. 당신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싸우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존경해요.” 케바라는 시선을 창 밖으로 옮기며 울적한 표정을 짓다가 긴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뒷에 걸린 큰 새 콘도르를 봤을 때처럼 안타까웠다. 케바라는 입가에 얽은 미소를 띠며 랑과 아르티아를 바라보았다. “랑과 아르티아, 고맙습니다.” 랑과 아르티아는 케바라가 땅콩죽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 빈 그릇을 들고 나오면서 “체, 희망을 가지세요”라고 나직이 말했다. 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평온했다.<sup>75)</sup>

사람을 사람으로 살게 할 에너지로서 정의를 지켜 갈 이 마음, 정의를 향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이 생명 사랑이 생태 영성을 비로소 완성에 이르도록 길을 열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 작은 것에 나서다가 큰 것에 주저앉는, 그래서 작은 것(불의 속의 안위)에 안주하면서 큰 것(창조와 구원의 회통)을 잃고 마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 4.1.3.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는 생태 영성

가톨릭 생태 복음화는 가톨릭 그리스도교 전통에 충실한 생태 영성 위에서 기획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역사와 현실 안에서 발견되는 한계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과 예컨대 대립적인 사고틀을 유포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그리고 2000년 가톨릭 역사에서 형성된 영성과 신학과 사목 전통들을 존중하면서 한국 교회의 역사와 그 속에서 펼쳐진 노력을 바르게 인식하여 이를 자기의 생태 복음화 사명에 역동적으로 통합할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 가운데 제약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를 깊이 통찰한 결과들을 겸비한 방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바른 비전을 갖출 수 있게 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라면 더욱 더 바람직할 것이다. 언제든지 개혁은 안에서부터, 있는 것을 돌보며, 있는 것을 통하여 시작하는 법이다. 민중과 그리스도 교회의 전통 안에 있는 것을 살아가는 방식이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것”이지, 자기를 몰각시키는 형태로 신학이나 영성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그만큼 폭력적이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부족과 한계를 간과하거나 호도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존중은 굴종이 아니라, 앞에서 본 “하느님의 집안” 영성의 지평 안에서 모든 차원의 “너”를 “너”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 4.1.4. 신앙 공동체의 갈망(*sensus fidelium*)에 응답하는 생태 영성

오늘 이 시대는 더욱 더 성직계 구성원들이 신앙 공동체의 삶의 자리와 통합되지 못한 형태로 교리와 교서, 사변적 강론을 제공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복음화를 발생시키기 어렵다. 황창연 신부가 이 시대의 삶의 영성과 관련하여 아름답게 증거한 것처럼, 이제 보다 더 신도들의 삶의 자리 중심으로 신앙살이의 유형이 전환되어야 하는 시대에 도달하였다. 신도들의 급변하는 신앙 감각에 귀기울이지 않을 때 이 시대의 사목과 복음화는 점점 더 정도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75) 전우익, 사람이 된데, 2003, 118-20에서 인용.

이런 관점에서 전 프란치스코회 총봉사자 헤르만 샬뤽(Hermann Schalück)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매우 주목된다:

인간 및 교회 학문에 대한 태만한 자세, 추상성, 무관심은 생명의 선물에 대한, 인간 인격에 대한, 또한 진리에 대한 공격이라고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서는 봉사의 질도 증거 및 삶의 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혹은 대화와 시대의 징표를 읽는 능력 없이 복음과 인간 인격만큼 고귀한 직분에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남용이요 존중심 결핍입니다.<sup>76)</sup>

교회의 현장과 사회 현실을 알고 자기의 역동성을 바로 알기 위한 깊은 성찰 없이는 복음화 시도 자체가 오히려 “진리를 섬긴다는 명목으로” 신앙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폭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은 지난 2000년 대회를 맞아 우리 교회가 고백한 그대로이다.<sup>77)</sup>

#### 4.1.5. 지역과 시민 사회와 함께 실천하는 생태 영성

앞에서 특히 고산본당 모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태 복음화 운동은 지역과 시민 사회와 통합되지 않고는 성공하기 어렵다. 원주교구가 1980년대 초에 그토록 역동적으로 형성하였던 생태 복음화의 방법과 실재를 지켜 가지 못한 데에는 교구의 신앙살이 비전이 지역 사회와 통합된 사목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구의 사목 구조를 끊임없이 혁신하는 데 소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 복음화란 그야말로 그물망처럼 교회와 세계와 하느님이 교회가 존재하는 구체적 지역 사회 안에서 상호 소통하는 다차원적 관계에 대한 자각과 이 관계에 대한 충실을 전제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생태 복음화는 지역과 시민사회에 자기를 개방하고 시민사회의 신음과 갈망에 충실하게 답하는 부단한 노력 위에서만이 비로소 풍요로운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 4.2. 생태 복음화 7단계 프로그램

#### 4.2.1. 목표

아래에 소개하는 강좌는 위에서 언급한 다섯 원리를 체화할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가운데서 “지역과 시민사회와 함께 실천하는 생태 영성”은 이 프로그램이 발생시킬 긍정적 효과로서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소개한 모델들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보다 더 역동적으로 익히고 발전시킬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심성을 그리스도교 영성을 토대로 생태적 전망과 통합시킴으로써, 복음화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네 강좌씩 7단계, 모두 28강좌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것을 지향한다.

76) Giacomo Bini, 유수일·오상선역,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2003년 작은형제회 세계총회 총봉사자 보고서, 작은형제회한국관구, 2003, 103에서 인용.

77)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cti\\_documents/rc\\_con\\_cfaith\\_doc\\_20000307memory-reconc-itc\\_en.html](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cti_documents/rc_con_cfaith_doc_20000307memory-reconc-itc_en.html) 참조.

첫째, 자신이 민족적 정체성을 통합시킨 가톨릭 자연 영성을 체득하여(첫째 원리),  
둘째, 스스로 한국적 생태 복음화의 기쁨을 맛보고(넷째 원리),  
셋째, 이러한 충만을 이웃과 나누는 가운데(다섯째 원리),  
넷째, 민족이 하나 되어 하느님의 생명과 정의의 다스림을 찬양하도록 매개하며(둘째 원리),  
다섯째, 특히 동북 아시아의 복음화를 구현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할 예수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다섯째 원리).

우리 교회는 복음화를 위한 이와 같은 역량 증대를 통하여 세계 가톨릭 공동체와 함께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의 생명의 다스림을 보다 더 역동적으로 증거하면서 이를 더욱 더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그 효과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여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학과 영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세계 교회와의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게 될 것이다(셋째 원리). 그럼으로써

둘째, 한국 교회는 내적으로 자신의 신학과 영성을 “주체적으로” 심화해 가게 될 것이다(넷째 원리). 이와 같은 교류와 자기의 내적 성숙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셋째, 세계 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영성을 좀더 건강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셋째 원리).

이 세 결과는 뿌리를 내리면 가지를 뻗게 되는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느님이 우리 민족 안에 뿌리 내리신 것을 그리스도교의 영성을 통하여 더욱 명시적으로 자각하고 그 뿌리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첫째와 둘째 단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제는 세계의 교회가 한국 가톨릭 공동체라는 나무의 그늘에 와서 쉬고 자양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데에 이르게 하는 것이 셋째 효과로 말할 수 있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 교회는 하느님의 뿌리 내리심에 대한 충만한 응답을 완성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7단계 강좌를 단계별로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 4.2.2. 단계별 강좌 개요

##### 1단계: 역사와 신앙

1단계에서는 “역사와 신앙”이라는 주제 의식을 가지고 먼저 한국 가톨릭 교회 200여 년의 역사를 세 인물, 곧 정약용과 안중근, 지학순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성찰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신앙 공동체가 민족의 역사 안에서 어떤 존재일 수 있었고 앞으로 또 어떤 존재일 수 있는가를 성찰할 기회를 마련해 준다. 여기서는 이에서 소개한 첫째 원리와 둘째 원리, 곧 민족과 사회 정의 차원은 물론, 다섯째 원리, 지역 사회와 더불어 복음화 차원이 특히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 단계의 마지막 시간에는 가톨릭 전통 안에 형성되어 온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의 계보를 검토하면서, 생태 복음화의 전망에 친숙해질 영성적 기초를 놓게 된다. 1단계 네 강좌의 제목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정약용의 배교와 은총 체험
2. 안중근의 다리 되기
3. 지학순의 고독과 연대
4. 가톨릭 자연 영성: 회심, 죽대, 그리고 연대

### 2단계: 영성의 모델

2단계에서는 먼저 세계 가톨릭 역사에서 선물처럼 존재하였던 “영성의 모델”들을 살펴본다. 이것은 셋째 원리로 제시된 교회의 전통에 대한 충실을 체화하고 그러한 충실이 오늘의 생태 복음화 실천에 얼마나 깊은 축복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마지막 넷째 시간에는 “신앙”과 “신학”의 주체로서 각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약기로서 하느님의 지휘에 어떻게 고유하게 응답할 것이고, 이러한 응답이 어떻게 하느님의 생명과 정의의 다스림에 대한 찬양의 울림으로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성찰하게 된다.

1. 힐데가르트의 “어머니 하느님”
2. 프란치스코의 가난 영성
3. 돈보스코의 임마누엘 영성: “임장” 영성-야훼-immanuel
4. 울림의 영성: “신앙”과 “신학”의 주체적 통합

### 3단계: 발로 사는 영성

3단계에서는 먼저 웅녀 이야기와 마리아 마자렐로와 소화 테레사의 영성을 살펴보고, 일상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기쁨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영성의 깊이를 함께 나눌 것이다. 생명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의 갈망과 투신을 일상의 현장에 비추어 조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 시간에는 영성살이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유형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우리가 들어서 있는 관계를 하느님의 생명의 다스림에 부합한 형태로 이끌어 갈 영성적 에너지를 길러갈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 웅녀의 희망
2. 기쁨의 영성: “빛자루”와 “장난감”이 만날 때
3. 일상의 영성: 섣다리와 배추벌레의 대화
4. 구(球-입체)의 영성: 지도 이야기

### 4단계: 현대 교회 정신 배우기

넷째 단계에서는 “현대 교회 정신 배우기”를 주제로 먼저 세계와 한국 가톨릭 교회의 현대성을 현시한 두 결정적인 사목적 성찰 사건, 세계 교회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한국 교회의 200주년기념 사목회의의 의의와 내용을 개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현대 교회에서 핵심적인 신학 비전으로 평가받아 온 동시에 논란의 초점이 되어 오기도 한 것으로서 해방신학과 다원주의 신학을 검토하면서, 이 신학들의 취지와 갈래와 역동성과 제약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셋째와 둘째 원리로서 교회 전통과 사회 정의 차원 등을 좀 더 밀착해서 돌아보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2.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3. 해방신학과 신학의 해방
4. 다원주의의 제유형

#### 5단계: 복음화의 원리

다섯째 단계에서는 “복음화의 원리”라는 주제하에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와 인도에서 복음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인물들의 복음화 방식을 돌아보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이들의 전통적인 선교 방식을 이 시대의 생태 복음화 방식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를 성찰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전통적인 복음화 방식을 생태 복음화와 단순히 대립시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대화의 임마누엘[臨場]에 닿은 한, 이 시대의 복음화의 영성적 토대이자 원리로 작용하게 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가 토착화를 도모하는 건강한 방식을 생태 복음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생태 복음화의 지평 속에서 셋째 원리인 교회 전통과 지역 사회의 정신적 전통과의 대화와 교류, 그리고 후자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를 자각하는 한 기회가 되어 줄 것이다.

1. 마테오 리치의 우정의 복음화
2. 바르톨로메오 드 라스 카사스 주교의 섬김의 복음화
3. 로베르토 데 노빌리의 현존의 복음화
4. 한국 가톨릭 교회의 복음화 비전: 토착화의 방식

#### 6단계: 복음화를 매개하는 이야기

여섯째 단계에서는 “복음화를 매개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네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게 된다. 안데르센의 “미운오리새끼”와 앤도 슈샤크의 “여자의 일생,” 자니 이렉슨의 “추락에서 날개로,” 끝으로 권정생의 “강아지똥”이 그 네 이야기들이다. 이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성적 역량으로서, 일상에서 하느님의 다스림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새롭게 자각하고, 그러한 능력을 키우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복음화 이야기를 구성할 역량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특히 앞에서 언급한 넷째 원리인 “신도들의 감각”을 성직자와 수도자를 포함한 하느님의 모든 백성이 스스로 언어화하는 역량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미운오리새끼”와 주체성
2. 기꾸의 눈물-슬픈 역사 바로 보기
3. “추락에서 날개로”-장애와 친구 되기
4. “강아지똥”(민들레)과 도라지(뿌리)-구심과 원심 영성

#### 7단계: 십자가 영성의 구현과 복음화 (Missio Jesu)

일곱째 단계는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이다. 여기서는 하느님과 세상, 그리스도와 교회, 성직계와 신앙공동체, 교회와 세계, 민족과 민족, 문화와 문화를 매개하는 다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간다. 그리스도교의 기원은 십자가 사건을 통한 부활 체험이었

다. 이 길을 다시 가려는 것이 이 단계를 기획한 취지이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부활을 향해 나아갈 희망의 영성, 기쁨의 영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십자가를 하나씩 준비하고, 이와 함께 십자가에 관하여 묵상한 내용이나 직접 쓴 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쓴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글을 첫째 시간에 나누고, 둘째 시간에는 그림이나 조각, 혹은 비디오 아트 쪽 작품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셋째 시간에는 음악 작품이나 춤 가운데 십자가에 관한 작품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할 것이다. 이를테면 십자가를 매개로 문학과 미술과 음악과 춤과 같은 예술을 통한 영성 나눔의 영역을 직접 체험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느님을 그리며 찬양할 기회가 될 수 있는가를 성찰할 계기를 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마지막이자 이 프로그램 전체의 마지막 시간은 “침묵”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것이 하느님께 내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어드려서, 그분이 쓰시고 그분이 이끄시도록 기다리는 우리의 “기도”를 상징적으로 구현하게 될 것이다. 디오니시우스가 통찰하였듯이, 참으로 “인간이 하느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적 풍요의 지혜로 침묵하는 데 있다.”<sup>78)</sup> 그분 안에 머물러 쉬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복음 살이와 복음 투신의 영성적 원천이 되어 줄 것으로 믿는다.

1. 좋아하는 십자가에 관한 묵상 또는 글(시, 수필, 동화 등) 나눔
2. 그림과 조각, 영상 매체를 통하여: 풍수원 성당 십사처와 살레가 물어뜯은 십자가 등
3. 음악과 춤, 뮤직 비디오를 통하여: “배추벌레”와 “오, 그대, 타우” 등
4. 침묵

## 5. 맺음말

생태 복음화의 영성적 기초는 하느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한 신뢰이다. 하느님의 손길이 닿은 것에 생명 있고, 축복 있고, 선이 있다. 하느님의 손길에 대한 이같은 신뢰야말로 마이스터 엑카르트로 하여금 이렇게 외치게 하였지 않았을까 싶다:

배나무 씨앗이 배나무로 자라고, 개암나무 씨앗이 개암나무로 자란다.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씨가 있다. 하느님의 씨가 우리 안에서 하느님으로 자라고 있다.<sup>79)</sup>

하느님이 자라는 지성소, 나를, 너를 누가 함부로 손대겠는가? 바로 이런 영성과 신학이 하느님의 생명의 질서에 대한 무한한 긍정과 희망과 투신을 낳을 수 있는 원천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 개인과 인간 사회의 죄스러운 현실을 간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나는 사회 정의와 생태 영성이 통합될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이 문제를 원리로서 제시하였다. 또한 바로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교 전통 속에서 형성된 “원죄”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생태 영성에서 가장 맹렬하게 공격받아 온 그리스도교 인간 이해 가운데 하나인데,<sup>80)</sup> 보다 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리

78) 길희성, 마이스터 엑카르트의 영성사상, 분도출판사, 2004, 79.

79) 원복, 197 참조.

80) 특히 원복, 50 이하를 보라.

라는 것이 나의 확신이다.

원죄란 단순히 인간을 짓누르는, 인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무슨 교리인 데서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것들을 훼손할 수 있는 거역의 실상, 이 파괴와 이로 인한 신음의 깊이가 얼마나 뿌리깊은 것인가를 고백하는 자기 진술의 가장 깊은 형태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이것은 자기의 죄스러움을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 당신뿐이시라는 찬양의 언어가 되는 것이고, 그 죄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다시 그분의 존재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음에 대한 희망의 선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포기할 것은 그것을 역사 속에서 그리스교 중심으로 악용한 그릇된 관행이지, 원죄론의 영성적 신학적 깊이인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생태 복음화 전망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신학과 영성 전통을 보다 더 깊게 보다 더 충실하게 재해석하고 계승할 위대한 사명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자각할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참으로 있는 존재만이 있게 한다. 빛이 빛을 부른다. 우리를 빛으로 부른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사는 모든 존재를 빛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뜻한다. 빛에서 온 모든 창조물이 빛에 닿도록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불리어 존재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이다.

위의 마지막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진술한 것처럼, 사는 것은 실로 다리가 되어 준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생태 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표로 삼아서 바로 이 다리 되기, 하나님과 세상, 교회와 세상, 나와 너, 우리와 너희, 이웃과 이웃,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문화와 문화를 잇는 예수의 돌보는 마음을 잉태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sup>81)</sup>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희망과 기쁨을 일상 안에서 체득하는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81) 황종렬, “프란치스코의 타우 십자가 앞에서,” 공동선 61, 2005, 106-8 참조.